

2022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 리뷰집

# 예술교육의 시각 돌봄의 시간

2022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 리뷰집  
 예술교육의 시각, 돌봄의 시간

016 프로그램

019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란?

사업소개	020
사업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021
사업추진과정 개요	022
공모추진과정 개요	023

025 프로젝트 리뷰

027 1. 노원·도봉권

TA소개	극단진동	029	
프로그램 소개	(파일럿) ◇◆아지트 정거장	030	
	(정규) ◇◆아지트	031	
TA소개	예술하는 아이다	033	
프로그램 소개	(정규)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 맺기>	034	
	(연계)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 맺기>	035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나를 키운 아지트 그리고 물들어가는 토양	037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사회적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	049	
인터뷰	돌봄종사자	제1호(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062
	TA	극단진동	067
	TA	예술하는 아이다	070
	지역예술교육TA 멘토	서지혜	074

081 2. 동작권

TA소개	아케이브	083	
프로그램 소개	(파일럿) 미래극장	084	
	(정규) 미래극장	085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자연스럽게 즐거운 기억을 안고 가는 것	087	
인터뷰	돌봄종사자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098
	TA	아케이브	102
	지역예술교육TA 멘토	송수연	105

111 3. 종로·서대문권

TA소개	디라운드	113	
프로그램 소개	(파일럿) 우리센터 수수께끼	114	
	(파일럿) 우리집의 수수께끼	115	
	(정규) OO씨의 수수께끼	116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직면하는 것	119	
인터뷰	돌봄종사자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132
	TA	디라운드	137
	지역예술교육TA 멘토	김혁진	140

145 사업 리뷰

김혁진 멘토	147
송수연 멘토	151
서지혜 멘토	154

160 에필로그







산마루  
아이케어센터



2006년 ‘예술교육과 공교육의 결합’으로 시작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은 2021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삶과 보다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예술교육의 현장은 어디인가? 예술교육과 함께 할 새로운 참여자들을 보다 폭 넓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협력기관으로 서울의 공적 돌봄 기관인 ‘거점형키움센터’를 만나게 되었고, 재단과 이 사업에 함께 해 온 예술교육가(TA) 선생님들은 지난 2년간 ‘돌봄’과 ‘지역’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현대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상이 다 같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예술적 상상보다 초현실적인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이후 세상의 변화를 가장 예민한 촉수로 앞당겨 감지하는 예술가들은 고민합니다. 자기 돌봄, 타자 돌봄,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각과 감각이 없다면, 미래 세계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이러한 돌봄에 대한 자각을 실천하는, 예술적 수행의 터전입니다.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과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예술교육은 미시적인 일상과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상상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들에게는 ‘거점형키움센터’와 연계된 초등돌봄기관들이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만나는, 최초 혹은 유일, 또는 몇 안 되는 지역 공동체 사회 경험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예술교육과 공적돌봄의 결합’을 시도한 ‘지역 TA’의 사업은 예술교육가와 아동들이 공존과 협력의 감각을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함께 확장해 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지역 TA 선생님들, 멘토님들, 서울시 문화본부 예술교육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문화재단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2년 12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실장  
우 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 돌봄사업실 김주미 실장입니다.

서울시는 지역내 중소형 초등돌봄시설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돌봄 기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초등돌봄기관과의 연계, 인프라 확충, 돌봄수요 조정,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함께 돌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거점형키움센터의 특화 기능인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네트워크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많아졌으나 이는 만들어진 결과물을 만나는 것이지 아동 스스로 새로 만들거나 문화예술을 연계한 활동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예술교육TA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기획하고 아동에게 일상 속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이 개발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예술가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 교육은 단순한 결과물을 접하는 것 이상의 경험의 차이를 제공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선도적인 창의예술교육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돌봄과 예술의 결합은 어려워 보였지만 지역 안의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아동에게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본 리뷰집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진행된 TA사업을 통해 지역예술교육의 선도성과 확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장  
김 주 미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란?

## 사업소개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 사업은 2006년부터 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TA사업을 지역·생활권으로 확장하여 일상에서도 예술가와 예술교육을 쉽게 만나고 또 가까이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1년 첫째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1호(노원·도봉권)와 2호(동작), 3개 자치구문화재단(동작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과 협력하였으며, 2022년 올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1호(노원·도봉권), 2호(동작)에 3호(종로·서대문)까지 협업하여 5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지역 돌봄의 현장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예술교육TA(Teaching Artist)로 선발된 12명의 TA는 학교 밖 생활 공간인 '키움센터'에서 만나는 초등아동과 함께하는 예술교육을 고민하고 기획하며 운영합니다. 예술가로서 창작을 기반으로 '돌봄'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만나, 지역, 일상, 돌봄, 아동, 또래집단 등을 가로지르는 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스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예술교육'과 '돌봄'이라는 다른 울타리를 넘나들었던 협업의 과정과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이 책에 담아봅니다.

돌봄을 통해 예술이 지역과 일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술을 통해 돌봄이 또다른 즐거움과 성장을 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왔던 많은 노력들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TA(Teaching Artist)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의 핵심 요소인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입니다.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동시대 예술과 창작으로 예술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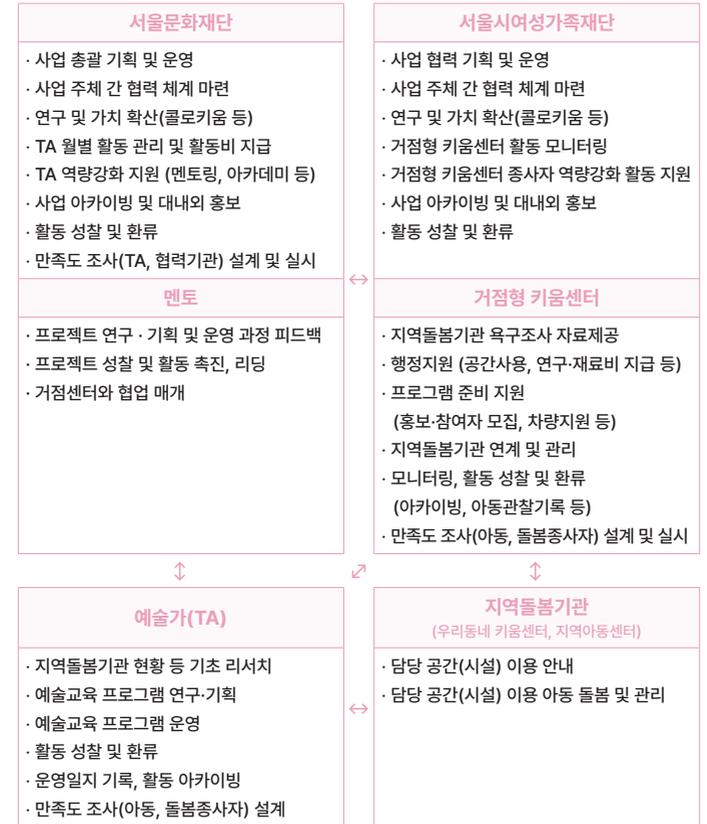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미적체험'을 기반으로 초·중등 공교육과 연계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교육이라는 삶과 예술이 통합되는 '통합예술교육'을 실현해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학교 밖 일상으로, 돌봄과 지역의 공간으로, 일상의 삶과 예술이 통합되는 '통합예술교육'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가까이 가기 위해,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들

2006년 예술가들이 교육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 학교를 만나야 했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야 했습니다.

2021년, 지역(자치구)과 돌봄(키움센터)을 만난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는 2022년, 다음의 주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협력했습니다.



## 사업추진과정 개요

공모 및 심사	협업을 위한 사전 워크숍 - 멘토링 - 아카데미 - 상호코칭워크숍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	돌봄종사자 및 관계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및 심사기간</li> <li>- 접수기간: 21.12.29.~22.01.17.</li> <li>- 서류발표: 22.01.26.</li> <li>- 면접진행: 22.02.08.</li> <li>- 최종발표: 22.02.17.</li> <li>· 공모내역</li> <li>- 접수인원: 199팀</li> <li>- 선정인원: 최종 4팀</li> <li>· 오리엔테이션</li> <li>- 일시: 22.03.15.</li> <li>- 내용: 사업소개, TA활동 안내 및 TA활동 계약진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li> <li>- 기간: 22.3월 중</li> <li>- 내용: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li> <li>· 아카데미</li> <li>- 기간: 22.03.15.~03.29.</li> <li>- 내용: 예술교육 및 공적돌봄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li> <li>· 상호코칭워크숍</li> <li>- 기간: 4~10월 중, 총 7회</li> <li>- 내용: 프로그램 연구개발 과정 공유 및 참여주체 간 피드백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li> <li>- 4월~6월</li> <li>· 내용</li> <li>- 프로그램 운영방향 수립 및 주제설정</li> <li>- 세부내용 기획</li> <li>- 프로그램 운영 준비</li> <li>-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일정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li> <li>- 7월~10월 중</li> <li>· 횟수</li> <li>- 총 30회 이상 운영</li> <li>- 월별 운영 횟수는 센터와 논의를 통해 설정</li> <li>· 목적</li> <li>참여자 모집 전, 돌봄종사자의 지역예술교육TA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참여자 신청률 제고 및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인식 확산</li> <li>· 내용</li> <li>- 정규 프로그램의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li> </ul>
<b>프로그램 운영</b>		<b>전문가 현장 모니터링</b>	<b>성과공유회</b>
<b>파일럿 프로그램</b>	<b>정규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7월~8월</li> <li>· 운영</li> <li>- 정규 프로그램 운영 전,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주제/소재/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파일럿 운영기간</li> <li>- 정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전 운영 기간</li> <li>- TA와 센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후, 피드백을 교류하여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진행함</li> <li>· 전문가/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9월~10월</li> <li>· 운영</li> <li>- 최소 30회 이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당60~90분, 10명 내외 참여)</li> <li>- 프로그램 보완 연구</li> <li>· 전문가/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7월~10월</li> <li>· 운영</li> <li>- 횟수: 월 12회 내외</li> <li>- 내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 피드백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1월 18일, 1회</li> <li>·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공동기획/운영/참석</li> </ul>

## 공모추진과정 개요

- 기간 2021.12.29. ~ 2022.02.17.
- 대상 문화예술교육 혹은 예술창작 경력 2년 이상이며, 예술교육 전문가로 성장·활동하고자하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예술인 3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팀)
- 지향점 및 운영방안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아동들의 주도성과 창의적·예술적 사고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교육
  - 아이와 같은 상상력,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반응과 관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융합될 수 있는 열린 예술교육
  - 지역 내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과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 사회 담론에 대해 탐구하는 예술교육
  - 예술을 통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을 상상할 수 있는 예술교육

### - 지원내용

#### [직접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활동비	단체(팀) 구성원의 안정적인 예술교육활동을 위한 월 활동비 지원	총1,200만원/인 월160만원/인 (총7.5개월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비	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교보재비 등)	최대600만원/단체(팀)

#### [간접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간 및 기자재	- TA 전용 연구개발 공간(1개실) 지원 - TA프로그램운영(교육)공간 지원 - 거점형키움센터 보유 장비 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	- TA 역량강화 아카데미, 워크숍 등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아카이브	- 재단 보유 홍보품(SNS, 월간지 등)을 통한 활동 및 결과물 홍보 지원 - 사진 및 영상촬영을 통한 활동 아카이브 지원

# 돌봄과 예술교육이 함께 한다는 것

1. 노원·도봉권
2. 동작권
3. 종로·서대문권

프로젝트 리뷰

## 거점 1. 노원·도봉권



노원·도봉권 TA

극단진동 (최소진, 광경숙, 유지현)  
예술하는 아이다 (이영실, 조경희, 배영은)



## 노원·도봉권 TA 소개 | 극단진동

### 활동 거점 | 제1호(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지역 내 초등돌봄 종사자들의 소규모 시설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초등아동 대상의 문화/예술/신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권역특화 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놀이 중심 문화예술활동을 특화하고 지원하며 아동주도적 초등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극단진동

‘지역을 바꾸는 힘은 문화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인 「극단진동」은 지역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의 이슈들을 같이 나누며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하며 창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TA(Teaching Artist) 소개



최소진 TA

문화기획자, 교육연극 연출가

문화기획자이자, 교육연극 연출가이다. 약 20년 간, 다양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공연 및 교사연수·학부모연구·기업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상을 만나며 예술교육을 진행해 왔다. 예술가로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는 지점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한다. 현재는 '마음이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모토 아래 세대별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 운영하고 있다.

곽경숙 TA

예술교육 기획자, 연극놀이 교육자, 예술치료사

예술교육 기획자이자 연극놀이 교육자이며, 예술치료사이다. 약 17년 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들과 다양한 예술치료적 기법을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을 해왔다. 예술이 지닌 본연의 힘을 믿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운영하고 있다.

유지현 TA

문화예술 교육가이자, 기획자

문화예술 교육가이자 기획자로 음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민화, 공예와 융합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5060 신중년세대와 소통하는 활동을 해왔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나에 대해 탐구하고 표현하며 개개인의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 | ◇◆아지트 정거장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 10명(초등 1~5학년)\*2팀
- 운영공간: ① 산마루아이휴센터  
② 도봉6호 키움센터
- 운영일시: ① 2022.07.06. ~ 2022.07.20. (매주 수요일)  
② 2022.07.07. ~ 2022.07.21. (매주 목요일)
- 운영회차: 3차시, 총 6회

프로그램 내용

<◆◆아지트 정거장>은 극단진동이 지역예술교육TA로서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하는 정규 프로그램인 <◆◆아지트>를 운영하기 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아동이 <◆◆아지트>를 미리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된 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우주공간처럼 연출된 공간에 들어오면서, 아동들은 익숙했던 돌봄공간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참여아동은 '아지트'라는 나만의 공간을 상상해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스스로 상상하고 써내려갑니다.



프로그램 명 | ◇◆아지트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 10명(초등 1~5학년)\*2팀
- 운영공간: ① 산마루아이휴센터  
② 도봉6호 키움센터
- 운영일시: ① 2022.08.10. ~ 2022.10.26. (매주 수요일)  
② 2022.08.11. ~ 2022.10.27. (매주 목요일)
- 운영회차: 12차시, 총 24회

프로그램 내용

<◆◆아지트>는 정형화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연극, 음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공간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공간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 맺음의 회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아지트를 상상하고, 아지트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직접 스토리텔링으로 써보고, 다양한 악기와 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만들며, 상황극을 통해 직접 쓴 이야기의 장면을 발표해봅니다.





## 노원·도봉권 TA 소개 | 예술하는 아이다

### 예술하는 아이다

예술을 통해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일상을 더 새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되었습니다. 창작과 예술교육을 연결하고자 하는 개인 예술가들(연극 창작자, 무대예술가, 음악가, 그림책 작가) 등이 모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대상과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과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 ▪ 가치

“예술하는 아이다는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예술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 TA(Teaching Artist) 소개



#### 조경희 TA

그림책 작가, 연구자,  
유아교육 전문가

엄마자판기, 아빠자판기 그림책 작가. 2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의 역할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 이영실 TA

독립공연예술가,  
연극놀이 전문가

베를린에서 연극교육을 전공한 드라마 전문가로 어린이청소년과 함께하는 예술작업을 하면서, 작가인 동시에 공연자 그룹인 독립공연예술가네트워크(IPAN)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배영은 TA

작곡가, 연주자, 음악감독

작곡가이자 연주자이다. 대학에선 피아노를 전공했고 이후 국악선에서 오래 팀 활동을 하다가 한국음악에 매료되어 국악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다. 기술로서의 음악교육이 아닌 예술로서의 음악교육에 관심이 많다.

프로그램 명 |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 10명(초등 1~5학년)\*2팀
- 운영공간: ① 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  
② 하계어울림아이후센터
- 운영일시: ① 2022.06.20. ~ 2022.10.17. (매주 월요일)  
② 2022.07.01. ~ 2022.10.21. (매주 금요일)
- 운영회차: 14차시, 총 28회

프로그램 내용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는 참여자들이 음악과 그림책, 연극을 매개로 '나, 우리, 일상과 자연의 연결과 순환'을 탐구하고, 예술가의 동료가 되어 지역 내 돌봄 관계 맺기에 참여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정규 프로그램 14회차 동안 초등아동들이 예술가와 동료가 되는 경험을 하고,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스토리텔링), 소리를 녹음하고, 직접 미니박스 씨어터의 장면을 그리고 만들어봅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에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소개하고, 미니박스 씨어터를 시연하며 큰 어린이가 작은 어린이를 돌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명 |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 및 영유아 대상
- 운영공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아고라 / 프롬나드
- 운영일시: 2022.10.21. (금)
- 운영회차: 행사 당일 1회 운영

프로그램 내용

2022년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예술교육TA '예술하는 아이다'와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가 함께 진행한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의 마지막 차시를 <2022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아동은 예술가(TA)와 동료가 되어, 익숙했던 키움센터를 벗어나 새로운 어른들의 공간에서 스스로 연극의 시연자가 되어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아고라와 프롬나드(외부) 공간을 넘나들며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연극적 연출을 통해 참여 어린이들은 마치 시공간을 이동한 것과 같은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나를 키운 아지트  
그리고 물들어가는 도양”

노원·도봉권 TA

극단진동 (최소진, 광경숙, 유지현)

## 지역, 일상을 살아가다

극단진동 최소진TA

만나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곳, 센터가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술교육이 뭔가 특별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엔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이길 바랬다.

나를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해 주셨던 앞집 옥순할머니의 거실이 나에게도 아지트였다. 학교 끝나면 매일 할머니네 거실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실뜨기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강북에서 유년시절, 학창시절, 청년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도 강북에서 지역예술가로 살고 있는 나에게 지역이 주는 의미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예술가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저런 일들을 병행하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산다. 대표, 문화활동가, 마을기획자, 연출가, 선생님...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산다. 전부 다 내가 맞지만, 가끔 헛갈리기도 한다.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처음에는 뭔가 복잡했다. 이런 식이면 안하겠다고 배짱도 부러보고, 화도 내봤다. 일하기 싫은 건 아닌데, 웬지 내가 프로 같지 않은 거다.

예술가들을 대우해달라, 대접받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았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하고 논리적인 내 언어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고...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말할 수 있다.

*"지역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들'이 아닌 '예술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해내는 생산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예술로 함께 소통하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큰 복이다. 옥순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아들의 첫째 딸의 쌍둥이들이 오늘도 우리 연극교실에 와서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 거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옥순 할머니가 나의 아지트였던 것 같다. 나를 이만큼 키운 것은 지역, 마을이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물론 마냥 좋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옥순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오늘도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오늘도 자란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난다.

### 일상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예술의 힘.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기능적인 측면을 예술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약기를 다루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추는 것, 창작을 하는 것만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가로 살아온 20여년의 시간 동안 예술이 뭘까, '예술가는 뭘까' 라는 질문을 해오며 어렵פות이 알게 된 진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예술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예술적 행위를 통해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술은 갤러리 안에, 오페라 하우스에 연극 무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속에 매일 '밥상'을 대하듯 녹아있다.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들, 생각들안에 예술적 행위와 감각들을 마주한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뽀뽀, 곤지곤지, 까꿍'을 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소통하고 느끼게 하는 일. 동화 주인공 놀이를 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는 일. 아이와 낙서를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일. 이것들이 모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의 모습들이다.

예술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술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창의력과 정서적 안정감, 회복력, 탄력성을 높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술의 진정한 힘은 주저 안고 싶을 때 일어 설 힘을 주고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힘과 용기를 주고 삶에 희망으로 자리할 때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발현되는 셈이다.

내면이 튼튼한 아이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짠!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다. 씨를 뿌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면서 키워 내는 것이다. 돌봄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키워내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환경과 문화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물들어 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역할이고 일상성을 가진 지역과 예술교육, 돌봄이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올바른 돌봄과 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성숙한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참여하는 것. 그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계속 달려가는 것이 지역이고 돌봄이고 예술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 지역이란 무엇일까?

극단진동 광경속TA

‘지역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해 본다. 과연 ‘지역이란 무엇일까?’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각종 지원사업의 공고 등 몇 년간은 ‘지역’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란 무엇이나는 질문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고민한다.

### ‘우리 동네’

어릴 적 내가 살던 우리 동네는 엄청 넓은 강도 있고 엄청 높은 산도 있고 엄청나게 멋있는 스머프 마을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스머프 마을이라 불리는 우리 동네의 놀이터는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놀이터였고 엄청 넓은 강으로 느껴졌던 그곳은 작은 우이천이었고 엄청 높게 느껴진 그 산은 4.19 국립묘지를 지나 올라가는 언덕길이었다. 그렇게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내던 그곳을 떠나 초등학교가 되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사를 한 곳엔 강도 산도 스머프 마을도 없다고 한참을 울며 이전의 우리 동네를 그리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이 10살, 20살, 30살을 넘어서도 내가 어릴 적 살던 그 동네의 그 느낌, 향기가 그리움으로 남아있어 입버릇처럼 ‘나중에 결혼하면 그 동네에서 살 거야’를 외쳤다. 지역이란 이런 곳이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내 친구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장소도 있고 동네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나의 손때와 추억이 담겨있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별것’인 것들이 모여 있는 우리 동네. 그 우리

동네에서 웃고 울고 성장하고 커가는 그런 우리 동네. 1년을 살았던 평생을 살았던 얼마간을 살았는가 보다는 그 곳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되고 나만의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곳이 지역이 아닐까? 그런 우리 동네에는 나만의 비밀 공간도 있고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고 마음이 맞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중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니면 하나만 있더라도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잔잔하게 아로새겨진 그런 곳이 지역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지역에서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잔잔하게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교육. 내가 어릴 적 우리 동네를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우리 동네처럼 나도 지역의 아이들에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

그렇다면 예술교육과 지역과 돌봄이 만나야 할 지점은 어디쯤일까? 라는 질문에 나의 답은 그 지점에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다. 현대 사회의 돌봄의 개념은 이전의 돌봄의 개념보다는 좀 더 확장되어 있고 좀 더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꾸려나가고 있다. 예술교육이든 돌봄이든 그 대상은 '우리 동네'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은 변함없고 그 목표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지역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잘 키워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각자의 역할과 상황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언어와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닌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아닐까? 서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있어 만나야 할 지점이 따로 있겠는가..

우리가 지역에서 예술교육과 지역과 돌봄으로 만나고 있는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게 같다면, 그리고 그 이유와 목표가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 동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경계와 지점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 지역예술교육TA가 된다는 것

극단진동 유지현TA

### 지역예술교육TA가 된다는 것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공적 돌봄 연계 예술교육을 연구·개발·실행할 지역예술교육TA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2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작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꽤나 긴 시간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내게 지역이 주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연주 활동 혹은 예술 교육은 주어진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즐거웠다.

지역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공간 거주지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는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 결국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판을 벌리고 있었다. 내가 사는 지역이야말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데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으니까. 나는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몫을 하고 있었다.

지역TA로 선정되기 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키움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키움센터'의 특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협력해 작업을 한다는 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은 그 언젠보다 재미있었다. '거점센터'라는 공간 자체를 옛날 우리가 찾아가던 동네

놀이터 속 아지트처럼 만들어 공간에 애정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기획은 기획일 뿐 키움센터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초심을 다잡기로 했다. 우선, 1호 센터가 위치한 지역 분석부터 다시 들어갔다. 내가 살아온 곳들이지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돌봄'과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알고 있던 사실을 재정비하며 아이들이 공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 공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했다. 지역 TA가 되는 건 쉽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돌봄 - 예술교육

키움센터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부터 정말 바쁘다. 코로나가 터지며 키움센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다. 키움센터에 출강했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키움센터의 센터장 뿐 아니라 모든 돌봄교사들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뿐 아니라 학원 갈 시간, 간식, 식사 시간 전부를 책임진다.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센터에서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렇게 바빠 돌아가는 돌봄기관과 예술강사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돌봄에서 면밀히 살피기 어렵고 소극적인 아이들의 적극성과 집중력을 예술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4명의 돌봄 교사가 모든 일정을 챙기며 18-20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돌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예술교육은 이렇게 바빠 돌아가는 돌봄의 일상에 지친 돌봄 기관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예술의 힘은 무궁무진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준다. 이러한 예술의 힘은 아이들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 예술교육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지역TA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수업의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래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예술 교육은 이처럼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돌봄, '돌보다'의 명사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을 말한다. 예술교육 역시 '사람'이 중심이다. 이처럼 돌봄과 예술교육은 서로 지향하는 방향점이 같다. 그러나 예술교육은 돌봄을 대신할 수 없고, 돌봄 또한 예술교육을 대신 할 수 없다.

예술교육가와 돌봄 종사자 간의 긴밀하고 끊임없는 소통은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쉽지않은 않을 것이다. 바라보는 지향점은 같아도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명확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TA와 돌봄 종사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동일하니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TA 에세이

#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사회적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

노원·도봉권 TA

예술하는 아이다 (이영실, 조경희, 배영은)

#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상상극장 : 새로운 관계맺기>

예술하는 아이이다 이영실TA

## 예술가(개인)의 작업에서 출발

예술교육의 성패는 어떤 관계, 어떤 생각,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달려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원천은 당연히 예술가 자신의 고유한 작업과 지향점일 것이다.

1인극 공연 <겨울이 오고 있다>

+ 미니어처 씨어터 <꿈꾸는 꿈 : 물고기의 기억>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1인극 <겨울이 오고 있다> 공연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의 변화에 '이유 있는' 저항을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꿈꾸는 꿈: 물고기의 기억>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애도의 마음으로 만든 미니어처 씨어터 형식의 작은 공연이다.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 새로운 관계맺기>의 초기 구상은 이 두 작품을 연결하면서 시작되었다.

## 돌봄 예술교육은 사회적 관계를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

작년 2021년 키움센터 지역TA 작업의 주요 키워드는 '공간'이었고,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키움센터라는 공적 돌봄 기관이 낯설지만 반가웠고, '그 장소'에서 아이들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예술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관계 맺기를 주도하고, 키움센터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 놀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올해 2022년 다시 한 번 TA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또 다른 관계 맺기에 도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다. 예술교육의 장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창작물로, 자신의 언어와 몸짓으로, 자신과 관계없어 보였던 타자와 섬세한 시선을 나눌 수 있다면, 예술가가 지역 내 돌봄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예술교육TA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협업의 장소

[예술하는 아이이다]팀으로 2021년에 이어 올해 2022년에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A로 선정되면서, 독립공연예술가인 이영실, 예술하는 아이이다 멤버로 창작과 예술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그림책 작가 조경희, 작곡가 배영은 이렇게 3명의 예술가의 특별한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다.

올해 예술하는 아이이다는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 새로운 관계맺기>로 3월-10월까지 총 8개월간 하계어울림아이휴센터와 상계숲속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별 각각 14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하게 초등학교(초기청소년) 18명이 봄여름가을겨울을 탐구하는 예술작업을 통해, 각자 자신이 창작한 계절 이야기를 6,7세 유아들에게 <미니어처 씨어터>(한 사람을 위한 공연, 1:1공연) 형식으로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매주 월요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거점형 키움센터 'TA방'에 모여 더 많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헤쳐 왔던 과정이었다.

유아교육 전문가이면서 그림책 작가인 조경희는 참여자들의 그림 이야기를 미니어처 씨어터로 발전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작곡가 배영은은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이야기에 사운드를 부여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소리의 세계로 모두를 초대해주었다.

##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관계 맺기가 예술가에게 미친 영향

프로젝트 원래 계획과 다르게, 예상치 못한 네 번의 공연이 있었다. 2번의 공연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2번의 공연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두 차례 예정된 발표 외에도 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 참여자들은

14회 차에 거점1호 키움센터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꺼이 공연을 했고, 그 순간은 축제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계어울림아이휴센터 참여자들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6~7세 유아들, 함께 온 어른들을 관객으로 만났다.

‘아이들의 살아있는 감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시 바라보는 것’어쩌면 명상은 예술가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낸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닐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만남에서 아이들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 아이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엿본 것 같다.

## 돌봄과 예술교육

예술하는 아이다 조경희TA

지역예술교육TA로 키움센터를 방문하였다. “거점1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센터이다. 과거 돌봄의 개념은 주로 간호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져왔다. 이는 인간이 성장 및 생존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누군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대부분 엄마가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돌봄이 더 이상 가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곳에서 아이들은 주로 무엇을 할까? 초등학생은 영유아들처럼 하루 종일 돌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주로 학교가 끝나고 난 이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후 1시 이후에 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있었고, 시간제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아이들은 교실마다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제 돌봄 교실에서 머무르기를 했다.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실은 시끌시끌했다.

이렇게 정해진 틀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안으로 우리는 예술교육을 융합할 수 있을까? 예술교육도 하나의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이 수동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다. 3개월간의 연구기간동안 우리는 돌봄과 예술교육을 융합하기 위해 센터와 조율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계절에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을 만나는 날 아이들이 생각하는 돌봄은 무엇일까? 아이들은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아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를 할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상계 숲속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2주후 하계 어울림 융합형 키움센터 아이들을 만났다. 두 센터의 아이들은 초등학생의 역동적인 모습 그대로 무척 정신이 없었다. 프로그램을 여는 이영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되면서 순환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계절, 일 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잠자기, 학교 가는 것, 센터 오는 것, 우주, 행성 등 등 아이들은 일상에서 자신들이 생각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 했다. 무척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줬다, 그중 센터 와서 도장 찍고, 프로그램하고, 밥 먹고, 도장 찍고, 집에 가는 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말하면서 재미있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이 당연히 계절을 가장 많이 답할 것이라 생각한 나는 조금 의외였다. 아이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돌봄을 할 경우 개인은 이렇게 통제 받는 다고 느낄 수 있겠다 싶었다. 이러한 아이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계절에 관한 명상<그림책 상상극장>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음악과 그림책, 연극을 매개로 '나, 우리, 일상과 자연의 연결과 순환'을 탐구하고, 예술가의 동료로 지역 내 돌봄 관계 맺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만날 기회를 두 번 가졌다. 처음 만나는 날 아이들은 동생들에게 계절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 주었고 계절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각각의 계절 이야기를 미니어처 씨어터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두 센터 아이들 모두 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돌봄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돌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미니어처 씨어터로 만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수동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해 하던 아이가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미니어처 씨어터를 만들면서 이야기의 줄거리와 음악을 녹음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아이들은 예술가가 되어있었다. 동생이 잘 들을 수 있게 헤드폰을 씌워주고,

잘 보이게 의자에 앉혀주고 진지하게 공연을 해주었다. 어린동생들도 무척 재미있게 아이들의 공연을 즐겼다.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돌봄과 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돌봄의 의미가 나이가 많은 아이가 더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에서 확장되어 예술가가 일반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은 자신의 일상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다. 스스로 일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예술로 옮기는 행위가 가능해진 예술가가 되었다. 돌봄의 사회적 영역에서 이렇게 예술교육이 융합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네 이야기를 들려줘

예술하는 아이다 배영은TA

## 네 이야기를 들려줘

‘돌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돌봄이란, 건강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도록 하며,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돌봄의 사전적 의미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도록 하는 일에 예술과 예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예술은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예술을 기술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 방법과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살아가는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힘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시기도 한다.

2022년 지역예술교육TA 활동을 하면서 “계절에 관한 명상-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만났다. 아이들에게 계절에 관한 발문들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왜 계절인가?’ 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계절과 그림책 연결’, ‘계절과 장면의 연결’, ‘계절과 소리의 연결’ 작업, 그리고 돌봄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 대상 탐색과 컨택하기 등 많은 과정과 논의를 거쳐 아이들을 만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갖게 된 질문은 예술교육의 지향점과 돌봄이 정의하는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과연 다를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가정, 학교와 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돌봄의 역할이라면 이는 예술의 한 영역이기도하기에 그렇다.

실제로 “계절에 관한 명상-그림책 상상극장- 새로운 관계맺기”의 주제로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계절을 연결시켰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꺼낼 수 있었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작품으로

탄생시켰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과 타인에 대한 시선과 관심을 한 번 더 갖게 되었고,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 향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만든 작품 안에서 아이들만이 가진 생각과 세계가 자유롭게 펼쳐졌다. 아이들은 예술적인 방법과 시선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작품을 만든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이야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작품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소중한 작품으로 바라보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아이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건강할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예술교육이 사람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는 방법인 것 같다.

## 돌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또한 큰 아이와 작은아이가 만나는 새로운 관계 맺기의 돌봄 형태를 시도하였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초등학생 큰 아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유치원생 작은 아이들이 매우 집중하여 들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즐기며 존중했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옛말이 떠올랐다.

더 나아가 돌봄이라는 개념이 강자를 약자를 보살피주는 것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였다. 큰 아이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 작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또래와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나눈다면 이 또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돌봄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이 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만나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경계 짓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연구기간과 14차시에 걸친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지나면서 계절의 흐름이 바뀌었다. 봄에서 초겨울까지.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한 예술가로서 나의 세계 또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무궁무진한 한 사람의 예술적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을 배우기도 했다.

어린 예술가, 지역의 어린 아티스트.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들려준 상계·하계 지역의 아티스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인터뷰

# “서로의 언어로 이해해보는 상상의 시간”

**돌봄종사자**

제1호(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TA(Teaching Artist)**

극단진동

예술하는 아이다

**지역예술교육TA 멘토**

서지혜

**Q** 소속된 센터소개와 ‘돌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와 도봉구 권역을 기반의 초등 돌봄시설인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노원·도봉권)(이하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담당한 김연희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에는 2팀의 지역예술교육TA와 매칭 되었고 저는 그 중 ‘극단진동’ 팀이 돌봄의 현장에서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 사업 안에서 함께 했습니다.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소속된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 설명하려면 거점형 키움센터와 흔히들 동네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방과 후 아동돌봄센터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사이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시설입니다.

이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규모적 한계와 예산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거점형 키움센터)’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놀이와 쉼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대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지역 내 초등 돌봄기관, 이용 아동,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거점의 특화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초등 돌봄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초등돌봄의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초등아동·가족 및 양육자 대상 지원과 지역 돌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등 지역 안에 ‘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기능’을 합니다.

서울문화재단과 2년간 함께 진행한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 사업도 거점형 키움센터의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주도 문화예술활동**

서울시에는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특징은 돌봄의 질을 높이고 권역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 예술, 신체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며 놀이 중심 아동주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생각하는 ‘돌봄’이란?**

먼저, 사전적 의미로 ‘돌봄’이란, 아이를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장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지·심리·정서·사회적 배움을 익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행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생각하는 ‘돌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센터 단위의 ‘돌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가 안심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건강한 가족관계가 유지되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돌봄을 센터에서 지향하는 ‘돌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아동’이 경험하는 돌봄의 의미로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고 쉴 수 있는 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안전교육’과 ‘건강한 식단 지원’과 ‘전인적인 케어’를 돌봄의 개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돌봄은 이곳을 아이들이 ‘제2의 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참여하며 아동들의 변화와 직원들의 후기를 듣고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로서는 센터를 방문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미래 사회의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술기반의 문화프로그램과는 달리 예술가인 TA(Teaching Artist, 이하 TA)와 상호소통하는 장기회차의 프로젝트인만큼 참여 아동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감소된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아동들의 집단 효능감과 자긍심 고취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기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교육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동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TA를 만나며 던져지는 질문과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자극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연극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극단진동과 예술하는 아이다 팀의 특성을 듣고, 아동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며 신체 발달과 균형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혹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과 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박스 안에 내가 상상한 세상을 꾸미는 시간 동안 '이 시간 만큼은 혼자여도 괜찮아', '친구들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는데요. 어린 유아와의 만남 시간엔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 작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네', '나도 형님이야'라는 생각에 어깨를 으쓱대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후 "왜 끝나요. 더 하면 좋겠어요"라고 하며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처음 이 사업을 참여하며 기대했던 저의 막연한 기대들이 마냥 헛된 기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역예술교육TA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돌봄의 새로운 관계 맺기 시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좋은 걸 보여주기위해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감과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예술과 돌봄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예술교육과 돌봄 현장의 만남을 통해 아동들에게 생생한 예술적 체험을 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실제적인 예술체험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감성을 가진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즉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탐색을 돕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때 지역예술교육TA의 활동이 좋은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나게 해주는 활동으로 평소에 쓰지 않던 오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였고, 아동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타인과의 만남이면서, 아동 스스로 자신과 만나 일상으로 돌아가 적응할 힘과 에너지 즉, 필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과 돌봄의 필요성**

모든 아이들의 삶에서 예술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가꿔나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술교육과 돌봄의 만남은 돌봄의 현장에서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협력이 중요한 시대. 그러나 우리들은 협력하지 않는 시대. 이러한 문화를 깨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돌봄을 바라보고

예술과 만나는 돌봄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삶'으로서 진짜 삶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예술(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남겨봅니다.

**Q**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경험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술교육과 돌봄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돌봄 속에서 예술적 영감과 아동 스스로 삶 속에서 이해한 것들을 표현하는 공동된 목적이 있음에도 예술영역과 돌봄영역에 기준 행정지침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만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TA와 돌봄교사 간 협업할 물리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은 뒤로 하고, 아동들은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 지내오던 편안한 장소에서 예술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들 내면과 삶에 작고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고학년인 철수(가명)는 학원을 결석하면서까지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 차시마다 하교 후 시간에 맞춰오려고 자전거를 타며 참여하는 아이를 보니, '과연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적극적인 변화나 참여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기대를 뽐내며 센터로, TA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나마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소홀했던 부분들에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정한 돌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예술교육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A  
Teaching Artist

극단전동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지역에서 수년간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미취학 때부터 연을 맺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며 살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이 가진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아이를 케어하는 돌봄이 아니라,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창의적 주체로 성장시켜 가기 위한 과정을 만든다는 지역 TA사업 취지에 공감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TA 사업이 예술이 가진 힘과 가치를 가지고 돌봄현장과 결합을 하고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같은 뜻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Q**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악기를 다루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추는 것, 창작을 하는 것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술가로 살아온 이십여년의 시간동안 '예술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해오며 어렵פות이 알게 된 진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예술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예술적 행위를 통해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갤러리에 또는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잼잼, 곤지곤지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는 그 시작부터가 일상 속 예술의

발견이 아닐까요? 예술의 본질적 목적은 창의력과 정서적 안정감, 회복력을 높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술의 진정한 힘은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설 힘을 주고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힘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힘과 용기를 주고 삶에 희망으로 자리할 때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발현되는 셈이죠.

만나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곳, 키움센터가 아이들의 소중한 아지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예술교육은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에 아이들도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같은 뜻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식도 생각도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소통과 이해라는 것도 각각의 경험과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주체가 모두 함께 정하는 합의된 약속 같은 것이 필요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통해 발견된 것들,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참여주체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실제적인 운영가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가이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각각의 가치판단이 다르고, 조직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소통하고 조율할 일들이 수시로 생기고,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일단 합의된 가이드를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고 보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점점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와, 잘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활동을 즐기지 못했던 친구들이 서슴없이 활동을 즐기고 표현할 때 한순간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이런 작은 변화의 시간들이 쌓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키움센터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공유 해주시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과 신뢰를 쌓으며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생기고 조금씩 물들어 가는 것이 예술교육의 힘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한 했었습니다.

**Q** TA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내면이 튼튼한 아이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교육은 씨를 뿌리고 잘 나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면서 키워내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환경과 문화의 일상속에서 서서히 물들어 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점이 예술교육의 역할이고 일상성을 가진 지역과 예술교육, 돌봄이 만나야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참여하는 것, 그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계속 달려가는 것이 돌봄과 예술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TA Teaching Artist

## 예술하는 아이다

###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2021년에 '예술하는 아이다'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TA사업의 주요 키워드는 '공간'이었고,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키움센터라는 공간이 낯설지만 반가웠고, 그 장소에서 아이들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예술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살펴보는 관계 맺기를 주도하고, 키움센터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 놀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TA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또 다른 관계 맺기에 도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예술교육의 장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창작물로, 자신의 언어와 몸짓으로, 자신과 관계없이 보였던 타자와 섬세한 시선을 나눌 수 있다면 예술가가 지역 내 돌봄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지역예술교육 TA로 선정되면서, 독립공연예술가인 이영실, 예술하는 아이다 멤버로 창작과 예술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그림책 작가 조경희, 작곡가 배영은 이렇게 3명의 예술가의 특별한 공동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Q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3명의 예술가는 하계어울림아이휴센터와 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18명의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한 공연예술 돌봄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한 키워드가 상호돌봄이에요. 그래서 참여자들은 사계절을 탐구하는 예술작업을 통해, 자신의 시선으로 각자 창작한 계절이야기를 6·7세 유아들에게 '미니어처 씨어터'(한

사람을 위한 작은 상자연극, 1:1공연) 형식으로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큰아이(참여자/배우)와 작은아이(유아/관객)의 관계맺기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죠. 프로젝트 과정 초반에 큰 아이들과 작은아이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놀이도 하고,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에게 각 계절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지점부터 어린이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린 동생들에게 공연을 들려준다는 부담도 느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집중력을 갖고 발전시켜나가려는 힘을 갖게 한 동력이 된 것 같아요.

###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은 정말 관계맺기가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은 기관들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각 기관의 원칙과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소통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키움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반에 각 기관과 TA 단체 간 서로의 입장을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하고, 프로젝트 연구와 실행에서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부터가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리서치 작업을 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연하는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예술가들은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업 초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를 잡아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키움센터가 예술가를 환영, 환대하는 곳이길 바라고, 또한 예술가들이 사회적 돌봄에 관심을 갖고 키움센터의 역할과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가 특별한 동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공간을 달리고 뛰고 장난치는 11살 남자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뛰기 시작해서 활동 초반부터 땀범벅이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고, 활동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장난을 걸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아이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으로 점점 막막해졌어요.

그 후 공연을 위해서 각자 이야기 창작을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이 아이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다가 그 날은 아예 매트 위에 몸을 던져 드러누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아이 옆에 같이 누워서 물어봤죠. “너의 이야기가 없는데 어떡할까?” 그러자 11살 장난꾸러기 눈빛이 진지해지더니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40분 이상을 꼼짝을 하지 않고, 그림과 함께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어요. 다른 참여자들이 자기 작업을 마치고 노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창작한 작품의 계절은 가을, 제목은 ‘잠자리의 날개’입니다. 날개를 다친 잠자리를 개미가 나뭇잎으로 감싸주었더니, 잠자리가 나뭇잎 날개로 다시 날개를 달았다는 내용이에요. 그저 장난꾸러기 땀범벅에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사실 무엇이 그 아이를 변화하게 했다고보다는, 그 때가 비로소 본인의 작업을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로 세상에 하나 뿐인 작은 상자연극을 만들어 어린 동생들 앞에서 의젓하게 공연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던 좌절감 속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놀라움을 안겨준 경험이었죠.

**Q** TA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계절의 관한 명상 <그림책 상상극장 : 새로운 관계맺기>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초기에 연구하고 진행하면서, 예술교육 안에서의 ‘명상’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졌었는데요. 사업 마무리에 참여자들이 창작한 계절이야기를 다시 보고 들으면서 어찌보면 명상은 예술가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낸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살아있는 감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겐 명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만남에서 아이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아이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엿본 것 같습니다.

**Q** 돌봄과 예술 사이의 멘토로서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역예술교육 TA사업에서 저는 돌봄이 이뤄지는 거점형키움센터의 조직과 제도, 공간, 예술교육을 행하는 예술가, 또 예술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과 지원제도, 담당자와 의사결정자들의 협력을 동행하며 적극적인 매개자라기보다는 관찰자이자 질문을 던져주는 자문가로서 매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벌써 느끼셨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이 꽤나 많은 복잡한 구조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돌봄이 이뤄지는 곳에 들어가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사업은 지역 돌봄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좀 더 진취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실험 무대와도 같은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보살핌의 장에 예술로 어떤 새로운 교육-보살핌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경험이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예술교육을 넘어 자신의 일상생활과 예술 활동의 경계에 틈을 내고 면적을 내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Q** 지역사회돌봄과 예술의 연계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의 가능성은 줄줄이 손꼽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던 가치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이뤄질 수 있는 돌봄이었습니다. 10명 안팎의 아동들을 함께 돌보면서 개별 아동의 특성적 차이나 특이점을 충분히 들여다보며 상호작용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술과 예술교육은 자기만의 사고와 실행의 장을 온전하게

인정해주고, 자기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TA의 조력이 있고, 다름이 평등하게 인정되는 경험이자 문화의 장을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두 영역의 연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손꼽을 수 있는 점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계절이라는 테마가 주어졌을 때 아동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꺼내는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의 스토리와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해내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거름이나 경쟁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작업으로 집중하며 예술작업을 대하는 작가의 고민을 개발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보살핌은 그 가치가 여러 방향으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많지만 각자 다른 가치를 기대하며 함께 손잡고 있다면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 키움센터와 지역TA들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지향해서 그려보고 싶은 '예술기반 돌봄의 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나누고 향하는 방향을 일치시켜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거점형키움센터 마다 지역적 특성이 달라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비전과 그에 따른 중기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상'을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함께 시도하고 검토해가면서 또 다시 시도를 이어갈 지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과 돌봄, 양 분야의 전문성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에 공동으로 두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이 고안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돌봄에 지역예술교육TA가 결합되는 사업의 목적 끝에 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술기반의 돌봄이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가치와 경험 등을 모색해 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써 TA들이 놓일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매개할 예술교육 프로듀서의 역할이 거점형키움센터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동들이 준비한 미니어처 극장 관람에 초대된 동네 유아들이 기대감을 가득 안고 모인 자리에서 유아들이 아동들과의 첫 만남의 시간과 활동을 기억하고, 여기에 아동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억에 당황과 감동의 마음이 스치는 표정을 보았던 순간의 인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담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미니어처 극장에 방문한 유아 한 명 한 명에게 공연을 정성스럽고 어른스럽게 관람시켜주는 아동들의 모습은 분명 교육 과정에서 봤던 모습보다 훨씬 의젓하고, 자신감에 차고 보살핌의 마음과 역량을 갖춘 오빠, 형, 누나, 언니였습니다.

이 시간의 인상이 깊었던 것은 비단 아이들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이 울 수 있도록 만든 여러 사람들과 과정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유아와 아동 돌봄간 연계점을 만들고, 예술을 매개로 형제자매로 성장하는 아동들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동생들에 대한 보살핌의 마음이 예술로 전달되고 이를 받은 유아들의 감응으로 되돌려받은 경험을 제공해보겠다고 의지를 세웠던 예술하는 아이다 팀과 그 가능성을 구현해보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인맥을 동원하며 돌봄기관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거점형 키움센터, 초청에 응해 수고로운 시간 조정과 이동을 감수하며 유아들을 이동시킨 돌봄선생님들, 공연 당일에도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제각각 추가로 동원한 조력자들로 가능했던 많은 마음과 노력이 합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정으로 상상하고 치열하게 가능하게 만든 과정이 뒷받침되어 아이들이 누리게 된 이 순간이 지역예술교육TA사업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Q** 멘토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돌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토대로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의 패턴을 가능하도록 동원되는 거점형 키움센터의 인력들과 인근 돌봄센터들의 공조 등이 잘 맞물려있는 토피바퀴와도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교육이 협력해서 새롭게 내고자 하는 틈과 이질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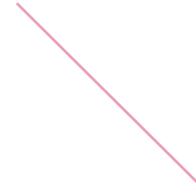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에 제대로 된 '앞'의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할까요? 돌봄의 현실계에서 가능성을 구현해가는 과정의 속도와 일정에 대해, 연결해야 하는 접점들의 미시성에 대해 재발견하고 지역 돌봄의 제도권 내에 예술교육이 결합할 수 있는 여정에 대해 새롭게 성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또 다른 가능성의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돌봄현장 전문가분들이 예술교육과 예술, 예술가들과 조력하고자 하는 바람과 그 영향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건 정말 반가운 발견이었습니다. 돌봄과 예술 분야의 공통점은 종사자들이 견고한 자기 사명감에 기초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해지거나 이제까지 행해오지 않은 방식을 따라본다는 것 자체로 큰 결심과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기반의 조각을 하나 빼었을 때 다른 영역의 기반 조각이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여정에 기꺼이 일 년을 바쳐서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프로젝트 리뷰

## 거점 2. 동작권



**동작권 TA**

아케이브 (오주영, 김해나, 임민재)



## 동작권 TA 소개 | 아케이브

### 활동 거점 |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동작구 초등돌봄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센터로 초등돌봄센터의 인적, 물적,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며, 초등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제공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초등 아동 및 가족, 양육자를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지원 및 지역 내 돌봄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 아케이브

아케이브는 Arch-Cave의 줄임말로 고대 예술이 동굴의 벽화와 같은 놀이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듯, 융합예술로 그 놀이성을 디지털로 가져와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케이브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어보는 경험과 협업을 도모하는 융합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케이브의 교육은 어려운 기술을 쉽게 분절해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협업의 놀이와 다양한 창작을 매개로 활동하며,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매개로 소통하며 창작하고, 표현하며 나를 알아가고,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희는 기술을 매개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즐거운 융합 기술 × 예술교육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 TA(Teaching Artist) 소개



**오주영 TA**  
미디어아트 작가

오주영은 게임, 인공지능 챗봇 등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작가로, 아르고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일민미술관, 현대모터스튜디오(서울, 북경)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엔씨소프트와 현대모터스 ZERO1NE 협찬을 받았다.

**김해나 TA**  
전통타악 연주자, 즉흥음악가

김해나는 전통타악 연주자이며 즉흥음악가이다. 그는 전통음악 공부와 즉흥연주를 통해 리듬과 사운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구하며 연주한다.

**임민재 TA**  
미디어 아티스트

임민재는 신체와 매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동시대 사회현상 속 몸이 존재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미디어아트로 담아낸다.

프로그램 명 | 미래극장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1~4학년) 8명\*2팀
- 운영공간: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 운영일시: ① 동작6호 키움센터 2022.07.13. 14:30 ~ 15:30  
② 동작9호 키움센터 2022.07.13. 16:00 ~ 17:00
- 운영회차: 1차시, 총 2회

프로그램 내용

<미래극장>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미래인들과 아이들이 상호소통하며 미래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인 '가면'을 직접 만들어보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미래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대인들이 살고 있는 2022년에 도착한 미래인들이 다양한 현대와 미래의 기술을 활용해 미래를 구한다'는 게임적 내러티브를 엮을 수 있도록 진행한 파일럿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명 | 미래극장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1~4학년) 8명\*3팀
- 운영공간: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창작실, 메이커교육장
- 운영일시: ① 동작9호 키움센터 2022.08.03. ~ 08.25. (매주 수, 목)  
② 동작6호 키움센터 2022.08.03. ~ 08.25. (매주 수, 목)  
③ 동작13호 키움센터 2022.09.07. ~ 10.26. (매주 수, 목)
- 운영회차: 8차시, 총 24회

프로그램 내용

'미래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대인들이 살고 있는 2022년에 도착한 미래인들이 다양한 현대와 미래의 기술을 활용해 미래를 구한다'는 게임적 내러티브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계관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관 안에서 아동들은 미래인으로 변신한 지역예술교육TA들과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에서 상호소통하며, 음악을 만들고, 움직임에 상상하며 아이템을 만들고, 아바타 디자인 등을 직접 제작하며 경험해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를 메타버스와 현실세계 사이에서 정의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며, 기술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나를 키운 즐거운 기억을  
자연스럽게 안고 가는 것”

동작권 TA

아케이브 (임민재, 김해나)

# 다음에 또 놀자!

아케이브 임민재TA

## 서울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다니!

성인이 되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느꼈던 강렬한 감정은 억울함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다니! 그리고 그게 다 서울에 있었다니! 나는 아무 것도 몰랐던 어린 나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듯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을 보러 다녔다. 그렇게 문화예술생활이 일상이 되었을 때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 삶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스펙트럼처럼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예술이 재밌고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어렵고 지루했다. 후자의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전시와 공연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마냥 억울해하던 내게 꽤나 충격이었다. 이후 어린 시절에 대한 억울함은 여러 질문들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알게 된 이 재밌는 것들을 어린 나도 좋아할 수 있었을까? 어린 이가 커서 예술을 마음의 장벽 없이 대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예술을 위해서 어른은 무엇을 해야 할까?

## 예술로 잘 놀기

내게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은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은 어린이들의 일상에 찾아가 예술 활동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고정된 태도가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이후 새로운 예술을 접할 때에도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재미'였다. 어릴 적 정신없이 놀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뒤돌아보며 웃음이 자꾸 났던 그 마음이 기억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놀았던 시간에 대한 애정으로 남았다. 어린이들이 예술로 재미있게 잘 논다면 그렇게 스며들 듯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우리 팀은 사업 내내 어떻게 해야 어린이들과 더 재밌게 놀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교육이라는 단어로 놀이를 한정짓지 않고, 또 동시에 놀이에만 집중하다 예술의 영역을 놓치지 않도록 거듭해서 주의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선생님이란 지위를 없애고 교육연극 방식으로 세계관 속에서 어린이들의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 안에서 미래에서 지구인의 기록을 채취하러 온 미래인이 되었고, 어린이들과 우리는 서로 별명으로 부르고 반말을 썼다. 미래인들의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을 짰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어린이들이 실컷 잘 놀다갈 수 있기를, 그 마음 하나였다.

## 다음에 또 놀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면서, 어째 내가 잘 놀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어린이들과 새 이름을 교환하고 친해지고 이별을 아쉬워하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걸 보니 어릴 적처럼 아주 잘 놀았나보다. 어린이들도 우리를 떠올리면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재밌었다. 또 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그 또 놀고 싶은 마음이 이어져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의 나처럼 곳곳의 문화예술들을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다. 마스크와 아이템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 때 그 집중하던 표정처럼 말이다.

# 싱그러운 시작

아케이브 김해나TA

2022년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 사업의 TA(Teaching Artist)로 참여하면서 전체적 소회를 나누는 에세이를 요청받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TA 활동이 낯설었던 나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예술교육TA가 경험한 일정을 시간 순으로 남겨본다.

## 싱그러운 시작

TA들의 첫 오리엔테이션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유의해야 될 점들과 알아야 될 추가적인 정보를 다루었다. 또 김혁진 선생님의 How → Why → What 토크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사업의 기초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키워드는 기관과의 '소통'이었다. 소통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조언해주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통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거점형 키움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진행하며 소통과 태도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서로 다른 언어와 물음표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키움센터라는 돌봄기관의 기준에 맞춰 '작업을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을 만드는 과정은 낯설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보고회가 몇 차례 진행되었는데, 발표형식으로 진행되어 떨리고 어려웠지만 준비한대로 잘

마무리했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돌봄기관과 TA가 동등한 위치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방적 피드백을 받은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분위기가 조금 아쉬웠다. 좀 더 촘촘하게 돌봄기관과 TA가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거점형 키움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며 돌봄의 현장을 보니, 상시 돌봄과 프로그램이 빈틈없이 돌아가는 키움센터 안에서 예술가와 함께 시간을 쏟으며 기획을 고민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키움센터에서 원하는 예술교육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과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갈 길이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은 아이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템포에 맞춰 예술을 음미하길 바라며 기획하는 반면, 돌봄교육의 언어에 익숙한 돌봄기관의 언어와 양식에 맞추려다보니 내용보다는 형식을 수정·보완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다. 각자의 다른 언어를 맞춰가는 진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준비과정의 조금 부족해보이더라도 예술가만의 언어를 조금 더 믿고 맡겨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을 다음 해에는 잘 설계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남겨본다.

## 으쌔으쌔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리서치 기간이었다. 리서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했고 결과적으로 Garage Band(이허가라지밴드) 어플 사용법을 주제로 수업시간을 짜기 시작했다. 가라지밴드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접근성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아케이브는 '수천 년 뒤의 미래인이 2022년의 고대로 넘어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아간다'는 컨셉으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고, 운영비용과 연구비용을 적절하게 맞춰 계획하며 교보재를 구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리와 컨셉이 구체화되었고, 회차별 프로그램이 조금씩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TA에게 아낌없는 관심을 주었다.

물론 흥미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스토리 라인을 조롱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지만, '뭐, 타당하다. 미래인은 실제로 없으니까.' 라고 스스로 멘탈을 관리하며 현타가 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TA로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웃음). 하지만 스토리에 빠져들어 열심히 활동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서 힘내어 수업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운영 스케줄은 대략 이렇다. 7월에는 종사자 교육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2회 가졌고 8-10월까지는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거점형 키움센터의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덕분에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 “서로의 언어로 시도하는 호흡의 시간”

돌봄종사자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TA(Teaching Artist)**

아케이브

지역예술교육TA 멘토

송수연

**Q** 소속된 센터소개와 '돌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동작구 초등돌봄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센터로 초등돌봄센터의 인적, 물적,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며, 초등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제공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초등 아동 및 가족, 양육자를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지원 및 지역 내 돌봄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돌봄이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의 대상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만 국한되어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하며, 인간 뿐 아니라 환경, 역사, 문화 등 돌봄의 대상과 내용,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동이 돌봄의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돌봄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돌봄은 다양한 내용과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문화예술활동은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사를 확장시키고 삶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돌봄 경험을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의 첫 해부터 함께하였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 학교TA 외에 지역 내, 일상에서의 예술교육을 확장시키고자 하였고,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초등 아동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 사업 초기 세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예술가'가 하는 예술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예술교육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역TA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혹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 현장에서 아동복지사로서 제가 만나온 예술교육 활동들과 지역TA들을 통해 만난 '예술가'의 예술교육은 사뭇 달랐습니다. 구조화된 커리큘럼과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하는 강사와 일하는 것이 익숙했던 저에게 교육목표보다는 방향성이 중심이 된, 구체적이지 않은 커리큘럼과 '예술가'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어나가는 예술교육은 사업 초기 저에게 다소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졌던 지역TA 활동이 특별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활동이 진행되고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활동 초반에는 아이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자유로운 진행 방식에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진행되고, 예술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술교육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지켜보며 지역TA활동에 대한 생각이 '모호함'에서 '특별함'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TA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역시 활동에 참여하는 센터 선생님을 통해 듣게 된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2021년 사업 초기 저희 센터에서는 본 활동 시작 전 '판타스틱 라이트'의 파일럿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선택받은 아이가 되어 연극과 시각 예술 TA분들과 함께 나를 응원해주는 수호신을 만드는 흥미로운 활동이었는데 활동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센터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의 짧은 예술 경험 몇 번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며 지역TA 사업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Q** '예술과 돌봄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에 있어서 돌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돌봄에 있어 예술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술은 경험의 확장을 통해 더 적극적 의미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은 보호적 의미의 소극적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의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술은 돌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른들이 만든,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아이들에게 일정한 규칙과 생활양식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바라기에 아이들이 마냥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술은 '이렇게 해야 해'라는 정해진 규칙이나 강요 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 예술은 돌봄 속에서 놀이와 배움의 경계를 허물어 줍니다. 저희 센터의 슬로건 중 하나가 '놀이 배움'이지만 사실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커리큘럼과 틀이 있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활동의 경우 아이들이 '놀이'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지역TA 활동을 통해 경험한 예술교육의 경우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러 오기 보다는 '놀러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하며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통해, 돌봄 속의 예술은 보다 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봄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며,

놀이와 배움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Q**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경험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2년 간 지역TA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아이들이 지역TA를 통한 예술교육을 경험하였고, 4~12회기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TA를 통한 예술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에게서 보인 가장 공통적인 변화는 기대감의 변화였습니다.

1~2회기 처음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은 의구심을 가지거나 소극적 혹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잖아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예술경험을 하게 되고 활동에 몰입하게 되면서 활동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태도와 기대감이 달라졌습니다. 표현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훨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었고,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우리 다음번에는 이것도 해봐요!'라며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역TA 활동은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의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예술을 경험하게 해주신 모든 지역TA 분들과 서울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돌봄 속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술교육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  
Teaching Artist

아케이브  
(임민재TA)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아케이브 팀의 리더 오주영님의 제안으로 지역예술교육TA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주영님은 2021년 미디어 아트 사업에서 처음 뵈었는데, 예술교육으로서의 미디어아트와 미디어 리터러시 등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주영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셨는지 미디어아트 기반의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으로 합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주셨고, 함께 고민하던 지점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선뜻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국악인 김해나님과 함께 세 명이서 팀을 꾸렸습니다. 지역예술교육TA 사업에서 모두가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는 다짐 아래에 TA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디어아트 교육은 흔히 기술이 앞서워지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의 기술사용을 수강생이 따라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게 될 아동들이 기술교육으로 수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방식은 아동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저희는 아동들이 기술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밌게 구성하고, 아이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술을 활용하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야기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았고, 사업 기간 내내 방향성으로 삼았었습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예술가, 아동들 뿐 아니라 돌봄종사자들, 여러 관계자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 관계자들의 언어와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모두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돌봄종사자들과 작가로 활동하는 저희의 언어와 생활 패턴, 문화 등이 달라 이를 합의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로의 환경을 초반부터 공유하고 조율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저희에게 자랑할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자랑을 할 때 아이들은 저를 꼭 별명으로 불렀었는데,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 아이템, BGM의 기획의도를 설명 들으면서 저마다의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깜짝깜짝 놀랐고 아이들이 이미 훌륭한 스토리텔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사를 하나씩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지역예술교육 TA로서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Q** TA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지역예술교육TA사업으로 아동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극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미래인이 되기도, 선택 받은 아이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예술을 체험했습니다.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어린이들을 확 사로잡아 몰입하게끔 한 적도 있었고, 이야기 상 설득이 안 되어 아동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쳐오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야기의 힘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아이들과 꾸준히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Q** 돌봄과 예술 사이의 멘토로서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돌봄과 예술 사이의 멘토로서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했다기보다 TA가 준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사회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이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회적 연결은 지역 돌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술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돌봄의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이번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멘토로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본 아케이브(거점2호)의 돌봄에 대한 관점은 태도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케이브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위계적, 권위적, 규율적 관습을 벗어나 스스로 게임을 이끄는 무대 매니저 같은 역할로 아이들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분홍색 슈트를 입고,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조조·밍밍·고양이'로 이름을 붙이며 아이들을 '미래극장'이라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미래극장활동은 예상하지 못한 시행착오의 과정도 있었지만 예술교육가가 해석한 '돌봄과 예술 사이'에는 위계와 권위가 없는 어른과 어린이와의 상호 관계를 더 고려하며 돌봄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접근했다는 점이 의미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지역사회돌봄과 예술의 연계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돌봄 기관에 오는 참여자(아동)의 상황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돌봄과 예술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예술기능교육이 아닌 아이들에게 지식과 감각을 전달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런 예술교육 과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지역적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예술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과 예술가의 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예술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행자간의 상호 신뢰와 서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지역에서 예술교육의 장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열을 위한 시간이지요.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실천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관련 주체가 모여 대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며 시행착오의 과정을 성찰하고 계속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선생님과 예술가, 매개자가 모이고 상호 간섭이 이루어지면 예술가의 교육 내용과 방법론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개별의 프레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경로 중의 하나가 지역예술교육이라고 보는데요. 그 장이 지역이나 돌봄 기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함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질문하고 서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콘텐츠의 완성도나 참여 인원에 대한 성과보다 지역예술교육이 지금 사회의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람이 성장해 가는 순간/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술가에게 예술교육이 확장되는 순간은 다양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예술가의 창의적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창의적 생각이라는 것은 예술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창의성과 실천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술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나 영역, 지역의 일상과 만나는 교육 활동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더 어렵습니다. 경험과 관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예술언어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면서 예술과 예술교육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예술교육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지역이나 돌봄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예술적 맥락에서 함께 고민하며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술교육의 경로를 다양하게 고민하는 예술가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TA 분들도 그 성장의 순간이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의 활동 경험에 대해 스스로 계속 생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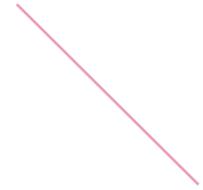
**Q** 멘토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새로운 경험은 늘 다른 곳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더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여론을 살펴봄여 미래의 성인이 될 아동을 걱정해 보기도 했고, 아동을 위한 미래교육이라는 화두도 들여다보며 어른들의 기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동들은 우리와 함께 지금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른들의 아동을 위한 미래의 걱정도 좋지만, 당장은 아동들이 어느 장소나 공간에서든 환대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환대는 지역에서 아동을 위해 어떤 문화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지역의 초등 돌봄기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봄에 대한 목소리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외부까지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리뷰

## 거점 3. 종로·서대문권



**종로·서대문권 TA**

디라운드 (이지숙, 김민형, 유수진)



## 종로·서대문권 TA 소개 | 디라운드

### 활동 거점 |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특별시제3호종로거점형키움센터(이하 거점3호)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것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거점3호가 연결된 마을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 디라운드

디라운드는 시각 예술가 이지숙, 김민형, 유수진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예술, #교육, #지역**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콘텐츠, 예술과 예술가, 참여자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참여자들의 주도적인 예술참여를 고민하며 2014년부터 지역연계 프로젝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며 간능성을 확장하고

**#교육**, 개개인과 예술가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질적연구 교육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지역**, 시혜적 예술교육이 아닌 지역을 무대로 참여자가 예술활동의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예술교육의 매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술교육을 지향합니다.

### TA(Teaching Artist) 소개



**이지숙 TA**

시각작가(사진, 미디어, 설치)

도시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기초적 의미들이 얽혀있는 재개발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 영상, 설치작업을 통해 재해석하는데 관심이 있다. 예술가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예술교육 현장에서 기획과 강사로서 활동해왔다.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무엇을' '왜' 만드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김민형 TA**

시각작가(조각, 설치)

현재 개인작업 및 디라운드 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신여대 조소과/서양화과를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2012년 '화성시 기안리 노인정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예술교육에서 참여자가 예술활동의 주체자로서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며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수진 TA**

시각작가(영상)

지역의 '장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가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교육에서도 '장소'와 '질적교육' 키워드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관련 활동 중 하나로 2018년 아현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우물 자리의 기원과 위치를 기록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동네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명 | 우리센터 수수께끼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돌봄종사자 10명 대상
- 운영공간: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5층 모이GO
- 운영일시: (1차) 2022.07.05. ~ 2022.07.07.  
(2차) 2022.10.12. ~ 2022.11.09.
- 운영회차: 총 5회  
(1차) 3차시 / (2차) 2차시

프로그램 내용

<우리센터 수수께끼>는 지역 돌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파일럿 워크숍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인 <OO씨의 수수께끼> 프로그램을 축약하여 3차시로 운영하고, 지역 및 장소를 소재로 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어필할 뿐만 아니라, 돌봄 교육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 교육 대상의 적합성 등과 관련한 피드백을 교환하며 참여 돌봄종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대상 파일럿 워크숍입니다.



프로그램 명 | 우리집의 수수께끼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과 동행한 가족 10명
- 운영공간: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5층 모이GO
- 운영일시: 2022.07.20. ~ 2022.07.29
- 운영회차: 4차시, 총 4회

프로그램 내용

<우리집의 수수께끼>는 정규 프로그램인 <OO씨의 수수께끼>의 축약된 형태로 진행된 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수수께끼를 만드는 과정에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우리집의 수수께끼'를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해봅니다. 구성원의 키에 맞춰 제작된 캔버스 위에 '우리집의 수수께끼'를 완성하면, 가족이 팀이 되어, 다른 가족들의 '우리 집'은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었는지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지역과 공간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는 인식과 상상력과 은유적 표현을 길러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명 | OO씨의 수수께끼

운영 세부사항

- 운영대상: 초등아동(1~4학년) 10명\*2팀
- 운영공간: ① 서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②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 운영일시: ① 2022.09.06. ~ 2022.11.01. (매주 화요일)  
② 2022.09.07. ~ 2022.11.02. (매주 수요일)
- 운영회차: 9차시, 총 18회

프로그램 내용

정규 프로그램인 <OO씨의 수수께끼>는 <나만 아는 동네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탐방한 이야기를 담은 <수수께끼>를 문장, 시각, 퍼포먼스, 미디어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만들어봅니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법을 활용해 수수께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지역과 장소를 새롭게 보는 방식과 여러 가지 예술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발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TA 에세이

“지역의 예술교육이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직면하는 것”

종로 · 서대문권 TA

디라운드 (이지숙, 김민형, 유수진)

##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바로,

디라운드 이지숙TA

‘예술가 그룹, 디라운드’우리 팀이다. 우리는 각자 예술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작가이자, 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자이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가이자, 또 각자 그 외의 활동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개성이 뚜렷한 세 사람이다. 벌써 함께 활동한 시간도 햇수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이 되어간다. 짧게 치든 길게 치든 그룹으로서는 꽤 긴 시간을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리더 한 명과 하위 멤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세 명이 똑같이 공동대표로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을 흥미롭게 봐주신 작가 한 분이 어느 날 오래 같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물어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만 구성된 팀이 이런 교육활동이나 프로젝트 등을 몇 해에 걸쳐서 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작가님께서는 ‘그냥, 어쩌다 보니’같은 말로 어영부영 대답 같지도 않은 대답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천천히 생각해 봤던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서로가 자신의 방식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지 않았던 것, 다른 하나는 서로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오랜 시간 자신의 언어를 시각예술로 구축해온 사람들이기에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방식이 명확한 사람들이었다. 일을 하는 스타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 등 세부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방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식들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추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회의

진행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소통을 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가능하지는 않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은 ‘좋은 게 좋은 것’같이 좋게 좋게만 어떤 상황을 대하면서 중요한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닌,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면서 완벽해진 양더라도 서로 이해가 될 때 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물론 몇 해가 지나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세 명의 예술가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알고 있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만큼은 완전하게 인지하고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태도에 가깝다.

이번 TA 활동에는 각기 다른 세 명의 예술가처럼 서울문화재단,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리동네키움센터, 멘토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번의 결과공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며 발생했던 문제들로 겪었던 갈등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과정을 되돌아보니 최대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만 했고 운영했었던 했다(매우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TA로서 필요했었던 연구로서 가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갈래로 영향을 뻗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라운드가 우리만의 명확한 예술교육론, 지역에 대한 개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피력하기도 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현장의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긍하기도 하는 등 디라운드가 내부적으로 소통해 온 방식들 그대로 여러 기관,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의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기관들이 얽히고설리게 된다. 올 해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내년에 3년차가 된다. 아마 더 많은 기관들이 엮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서로 당연히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소통에 있어 뒤로 빠진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피력하고, 서로의 의견에 열린 태도로 임한다면 발전적인 과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난항을 겪는다면 본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을 함께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 지점을

잠깐이라도 되돌아보는 것이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TA는 완성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서울문화재단은 지역과 돌봄현장 그리고 예술교육을 아우르기, 키움센터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대략 이런 목표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술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동을 바라봐야만 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결국 아동들이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면 좋겠다

## 디라운드 × 우리동네키움센터 ×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 서울문화재단

디라운드 김민형TA

### ✓ 예술교육의 시작

나의 첫 예술교육의 시작은 충남 서산이었다. 충남 서산에서 나고 자라면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커왔다. 큰 조카가 그곳에서 아직도 나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음에 예술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술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예술교육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을 스스로 즐기고 채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 각자의 역할, 그리고 역할의 경계

디라운드는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교육한다. 이번 서울문화재단 TA는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만 했다. 많은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동시에, 재단에서 요구하는 것들, 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의 예술교육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디라운드도 이런 역할의 TA는 처음이라 각자의 역할만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서로의 조율이 그 어느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화두였다. 긴 호흡으로 함께 한 이 셋의 역할은 조금은 빼그덕 거렸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은 서로의 역할과 경계가 없음을 느낄 수 있다.

### ✓ 대화 속의 수다가 부족한 우리

재단 담당자들, 센터 담당자분들과 자주 만나 대화는 나눴지만, 수다는 못 나누었다. 수다 속에 서로의 부족한 대화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궁금증, 서로에 대한 공감의 부족했던 아쉬움이 남는다.

### ✓ 좁았던 장소만큼 가까웠던 참여자와 해당 센터, 그리고 TA

수업시작 2시간 전 수업준비를 위해 해당 센터로 간다. 수업은 4층, 1층에서 항상 해당 센터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우리 TA 3명, 아이들 10명, 센터 담당자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수업을 한다. 잘 준비된 공간도, 수업하기 좋은 책상도 의자도 없는 바닥에 앉아 긴 회차 동안 매주 수업이 진행된다. 때론 불편하고, 좁고, 활동이 제대로 안되기도 했지만, 가까운 거리만큼 우리의 거리도 가까웠다. 해당 센터의 선생님의 만족도도,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도 함께 롤링페이퍼의 “정이 많이 들었다.”라는 말로 대신한다. 소중한 오래 기억에 남을 수업이었다.

## 협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디라운드 유수진TA

‘디라운드’는 김민형, 유수진, 이지숙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2019년도부터 공동대표로서 팀 활동을 시작했다. 각자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는 예술가로서 지역이라는 지속적인 주제를 기반으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조각, 설치, 미디어라는 매체를 각각 사용하는 김민형, 유수진, 이지숙은 시각예술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뚜렷한 개성과 대상에 접근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4년여 동안 ‘디라운드’는 팀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언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장점으로 두고 활동을 해왔으며 매체의 사용, 기획, 진행 능력 등 다른 능력을 찾을 수 있고 서로의 전문성을 확장했다.

‘디라운드’의 특징은 시각예술가로 이루어진 팀원 외 협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협업의 목적은 융합예술을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감각으로 ‘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각을 사용할 수 있는 조향사, 신체의 특성을 알고 이를 ‘지역’과 연계해볼 수 있는 무용가, ‘지역’을 잘 알고 새로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등 여러 예술가 혹은 비예술가와 협업을 경험했다.

이번 <OO씨의 수수께끼>에서는 ‘디라운드’가 이전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 접목하지 못했던 ‘소리’라는 새로운 감각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세부운영 구성을 시작했다. 소리 관련 워크숍을 기획했으며, 전문가와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시각과 함께 소리를 주요 표현방식으로 녹여내며, <OO씨의 수수께끼>가 이전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단조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디라운드’는 지역 안에서 팀원과 협업전문가를 만나며, 상호 간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기획·운영하였다. ‘디라운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한 팀 활동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 수혜자를 참여자뿐 아니라 스스로 규정하게 되면서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체감하면서 함께 해올 수 있었다.

<OO씨의 수수께끼>는 3호 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의 협조로 기획,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기획은 3호 종로·서대문 거점센터에서 운영을 목표하였고 종로·서대문 내 기관과 명소 중심으로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센터는 학생들이 단발성으로 방문, 장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센터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점 등의 거점형 키움센터 요구를 수용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활동 장소가 변경되었다. 또한 ‘동네’와 ‘고향’이 없는 도시 속 아이들이 주제적이고 ‘삶’에 밀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며 <OO씨의 수수께끼>는 명소 중심의 지역적 접근이 아닌 참여자들의 ‘동네’로 지역을 재설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프로그램 및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치한 지역연구가 동반되어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OO씨의 수수께끼>는 9회차 프로그램으로 최종 운영되었으며, 동네 알아보기 - 시각 표현되는 우리 동네 - 청각으로 표현하는 우리 동네 - 수수께끼 풀기 / 전시회 운영으로 4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거점센터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수업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대형활동을 여러 차례 소규모 활동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분할된 소규모 활동들은 이를 조립하고 다시 해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과정을 모듈화했다. 운영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활동과 재료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다. 특히 TA 활동 이후에 센터별 운영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용보다는 일상에서도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재발견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등을 구성함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도 공간을 새롭게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공간 규모에 따라 전시 변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프로그램 이전과 이후, 5회차의 종사자프로그램으로 예술가와 예술프로그램 그리고 돌봄현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디라운드’는

일회성의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돌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TA활동 이후 지속적이고 자체적인 예술프로그램 기획을 기대한다.



인터뷰

# “서로의 언어로 돌아보는 마주함의 시간”

돌봄종사자

제3호(종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TA(Teaching Artist)**

디라운드

**지역예술교육TA 멘토**

김혁진

**Q** 소속된 센터소개와 '돌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이하 거점3호)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것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거점3호가 연결된 마을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거점3호는 아이들에게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놀이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의 필요(육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요하며, 사적이거나 공적인 영역 어디에서든 상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주고받는 돌봄은 특히 '관심과 애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이들과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서 '돌봄'의 의미를 피부로 느낍니다.

'지역예술교육TA' 활동 속에서도 '돌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와 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만, 아이들이 TA시간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관계'와 '관심'이 바탕이 된 예술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만났을 때 아이에게 "거북이는 잘 지내?" 라고 예술가가 안부를 물었는데, 이 한 마디로 아이의 일상이 예술과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예술가는 분절된 활동 속에 있지 않고, 아이의 일상에 함께 머물게 되는 모습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돌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봄의 관계'로 사람은 연결되고, 누구나 '돌봄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가 돌보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스스로 돌보는 힘'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보는 아이(어른)'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힘'과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술교육TA>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질문받는 경험', '스스로 질문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돌봄교사로 아이들이 생활예술을 경험하길 기대하면서도, 거점의 시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일상을 예술로 표현하면서 경험하게 할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TA>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이 예술과 만나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본인 역시 활동을 담당하며 '일상이 만나는 예술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거점3호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예술로 표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작업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예술'을 특별한 것이 아닌 '생활예술'로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지역(동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라운드>라는 팀을 만나면서 그 기대가 더욱 컸다. '고향', '우리동네' 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동네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며, '우리동네'를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 덕분에 이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혹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펼쳐질지 전혀 상상할 수 없어 걱정되기도 했지만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예술가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일상이 '예술'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예술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낯설지 않은 존재로 아이들의 공간에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아이들과 관계 맺기 위해 활동이 있는 날 매일 30분 정도 일찍 갔습니다. 다른 활동에서 무리(집단)로 만났던 아이들이 개개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활동에서 짝게는 하루 또는 3회기 활동으로 만났던 아이들은 그저 '어느 센터의 아이들' 정도로만 기억했는데, 아홉 번의 TA활동으로 만나면서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명)'는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에 눈물 콧물로 고생하는 아이라는 것을, '진우(가명)'이는 주로 바닥에 몰아일체 되어 생활한다는 것은, '서진(가명)'이는 전교 부회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TA활동에 참여하려고 나름 애쓰면서 2~3번 빠지게 된 것을 아주 속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할 때 '서진(가명)'이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TA활동을 소개하고 활동 참여자를 모집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막상 전 날이 되자 '늘 시간이 줄어들어' 참여하기 싫어 교사랑 실랑이하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설득하여 첫날 활동에 참여해보고 결정하기로 협의했고, 첫 활동 참여 후 지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 나눌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자기는 너무나 후회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진(가명)'이가 지역TA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좋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활동 속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존재'와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아주 기억에 남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민수(가명)'라는 남자아이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가 와서 말했다. '민수는 센터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거예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대로 민수는 여덟 번 만나는 동안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술가와 귓속말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민수는 항상 표정 없는 얼굴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의 눈빛은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교육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Q '예술과 돌봄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교육을 통해서 '매일 지나다니던 길과 홍제천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어요.' 라는 아이들의 답변이 기억납니다. 본 것들을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담당 선생님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나들이 장소 '홍제천'을 어떻게 아이들이 바라보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장소가 어떻게 예술을 매개로 표현되고 변화되고 기억될지 궁금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이 새롭게 보이고, 또다시 지나갈 때 함께 걸었던 기억(TA활동)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것은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관한 생각이 넓어지고 일상을 새롭게 보는 힘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 내가 몰랐던 평범한 하루에서 찾아내는 것  
사람들이 몰랐던 것 다 즐기면 감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 예술이란 영감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오늘의 기분 등등의 대해서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거 등등 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 예술이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 지식 개성을 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리는 사람도 뿌듯하고, 보는 사람이 치유하고, 모두가 즐거운 것이다.

- 지역예술교육 참여 후 아이들의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질문의 답-

”

TA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활동도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술가가 예술적 기술(기교 또는 기법)을 알려준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말 걸어주기(아이들의 일상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TA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잔상처럼 남겨져 지금까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TA  
Teaching Artist

디라운드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디라운드'는 시각예술가 김민형, 유수진, 이지숙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지역과 예술,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팀입니다. 디라운드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콘텐츠, 예술과 예술가, 참여자 중심 활동의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지역예술교육 TA <예술로 가까이>는 단기간에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충분한 연구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과 깊이 관계 맺으며 참여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목표하는 점에서 '디라운드'의 운영 방향과 맞닿아 있던 점이 가장 큰 참여 동기였습니다. 또한, '디라운드'는 종로·서대문 지역에 관심을 둔 연구가 선행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교육TA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디라운드'의 정규 프로그램인 <00씨의 수수께끼>는 <나만 아는 동네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담은 수수께끼를 함께 만들어 보는 형식의 예술교육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수수께끼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장·시각·청각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드러나는 수수께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지역, 장소를 새롭게 보는 방식을 발견하고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종로·서대문 내 기관과 명소 중심으로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던 예술교육은 동네와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는 도시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삶에 밀접한 예술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O씨의 수수께끼>는 명소 중심의 지역적 접근이 아닌 아동들의 '동네'로 지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디라운드의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나'의 일상과 마주하며, 일상 안 예술 향유를 중심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OO씨의 수수께끼>는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세부기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프로그램 연구가 서대문 3호 거점형 키움센터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나, 여러 이유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변경되었고 센터 선정이 어려워 새롭게 정해진 센터에 맞춰, 수업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수정된 것이 아쉽습니다. 참여자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대형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규모가 큰 공간 섭외를 요청했으나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공간이 예상보다 협소해짐에 따라 표현활동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보완하는 방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종 센터 선정이 예정보다 지체되면서,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변형되는 부분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이 대부분 연초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TA프로그램 기획 이전에 교육 장소 및 협조 센터가 선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과 더욱 밀접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며, 진행에 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 팀의 경우, 정규프로그램 이전과 이후 총 5회차의 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규프로그램 이전에는 <OO씨의 수수께끼> 세부기획을, 정규프로그램 이후에는 프로그램 피드백과 차시별 수업 사진 및 상세한 진행 상황, 추가로 향후 프로그램 보완

및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들의 예술가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디라운드에게도 생소한 '돌봄'의 개념과 돌봄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상호보완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디라운드와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고, 종사자들의 적극성과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TA 사업을 일회성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돌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TA사업 이후 지속적이고 돌봄현장의 자체적인 예술프로그램 기획을 기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워크숍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Q** TA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우리 동네를 수수께끼 방법으로 풀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하는 수수께끼라는 수업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게다가 저학년과 고학년이 뒤섞여 수업 난이도에 대한 염려도 함께 들었어요. 수많은 걱정 속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동네'의 개념도 희미했던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인식하게 되었고, 나이 차이에서 우려되었던 수업 편차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다양한 표현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결과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디라운드를 단순히 예술교육 선생님이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예술가와 함께 활동하면서 예술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을 보며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지역예술교육 <예술로 가까이> TA를 경험하며, 교육 참여자가 수혜자가 아닌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고 또 다른 예술의 매개자가 되는 저희 팀의 지향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 돌봄과 예술 사이의 멘토로서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매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영역이 모두 존중받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술교육은 이미 예술 자체를 위한 교육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생각에서 일상의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교육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TA(Teaching Artist)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돌봄' 과 '예술교육'의 연계는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교육 현장은 공동의 작업이라기 보다는 강사인 예술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시설의 공간이나 시간을 내주는 수준으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자 관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경우는 실제 많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참여자 모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운영하던 예술가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지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예술교육 또는 예술돌봄교육의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지역사회돌봄과 예술의 연계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술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배우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수자의 의도대로 학습자들이 이끌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가 되어 교수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술교육에서 만나는 다양한 창작 경험의 세계 또한 또 다른 예술가로서 자신의 창의성, 창조성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돌봄 정책 또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만나는 어린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가 아니라 돌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고 다른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어린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역사회돌봄이 지향하는 가치는 결국 그 주체인 어린이로 귀결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학교의 교육이 아닌 또 다른 예술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창작하는 과정으로 예술교육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술이 다른 분야와 만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융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돌봄의 정신이 예술교육을 통해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Q** 향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이 발전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우선 개선이란 단어가 문제점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평가의 관점으로 보면 발전을 위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패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경험이나 부족함을 느꼈던 경험도 지나온 과정이 기록이 되어야 그 변화도 알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나누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단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도 수년전부터 아카이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지 사진 기록이나 공식적 기록만으로 아카이빙이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지역예술교육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2년동안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경험과 이야기, 변화의 과정이나 경험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효과성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단순히 통계 검증 방법만 쓰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이 어린이들과 지역예술교육에 어떠한 의미와 효과가 있었는지 논의하고 찾아보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결해줌으로써 언어와 생각을 매개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돌봄사업은 정책분야에 따라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공통의 경험 영역으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거점형키움센터를 통해 발견하게 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술로 돌봄’ 또는 ‘돌봄의 예술’로서 예술교육이 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의 주체인 ‘어린이’들 자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프로그램 과정 자체에 대한 열린 마음이나 태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어린이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과정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TA의 기획에 의해 준비된 과정 속에서 제한된 수준의 창의적 활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술가와 함께 예술을 만들어가는 경험 자체가 새로웠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반응을 깊이 관찰하거나 생각을 읽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린이들의 생각과 경험, 반응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새롭게 만들어간 사례도 발견하게 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기획한 교육활동 절차와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유연한 대응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의 여백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린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응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예술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상기시켜 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Q** 멘토로서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교육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이며, 이는 서로의 언어의 세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말도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분야마다 자기세계의 가치와 이념, 문화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한 존중이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개자 역할도 이야기 되었지만 대화의 과정을 잘

# 우리는 왜 협력하려고 할까?

# 2022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 리뷰 : 앞으로의 방향 탐색하기

김혁진 멘토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2021년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 이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운영 과정에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22년은 전년도와 달리 자치구 문화재단 TA 프로그램이 제외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어린이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돌봄센터를 말한다. 이미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업이 있지만, 키움센터는 대상층이나 운영 방식 측면에서 차별화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키움센터를 통해서 돌봄 사업이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모든 부모와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키움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대상층 선정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쩌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는 대상 기준은 어린이들이 돌봄의 혜택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돌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가 지향하였으면 하는 첫 번째 방향은 어린이의 “권리”로 예술교육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존과 안전의 권리와 같은 권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사회의 당연한 한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예술로 놀고 예술을 즐기고 미적체험을 통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경험이 어른들에 의해 배풀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문화적 권리라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가 기존의 학교예술교육 TA, 예술교육센터 TA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속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키움센터와 함께 첫 사업을 시작한 것은 키움센터를 통해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들어나갈 때에도 이 정신은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공급자 대 수요자, 또는 교수자 대 학습자와 같은 대립적 존재 개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예술로 놀고, 상상하고, 관계를 맺고, 창조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역예술교육은 지역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예술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문화의 권리자가 되어 주도적, 능동적, 창조적으로 미적체험의 경험을 만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지역예술교육 또한 사람 중심의 예술 또는 예술교육이라는 이념과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 방향은 2021년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강조해 왔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술교육이다. 키움센터와 함께 만들어진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제안된 것은 질문의 중요성이었다. 좋은 예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은 먼저 던져 보기를 권했다. 그래서 일년간의 과정을 “WHY?”로부터 시작하는 예술교육을 통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HOW?”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서울문화재단의 TA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자 전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예술가들이 교육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과정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과 예술교육 콘텐츠,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미 잘 만들어진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 잘 패키징 된 프로그램 매뉴얼을 선택하여 필요한 곳에 매칭 시키는 기존의 공모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TA 기반 예술교육사업이 여타의 프로그램 공모 사업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서울예술교육센터의 경우 ‘예술놀이 LAB TA’ 시스템을 통해 예술가들의 연구와 실험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정도의 개방성, 다양함에 대한 수용성,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태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심도 하고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탐색한다는 것을 뜻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길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다양한 대안들은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지 못한 변수나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세 번째 방향성은 “지역”의 개념,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의 확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범위가 다르고, 지역예술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지역예술교육이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예술교육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 기관이 주도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바라보든지 지역예술교육은 지역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경로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술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는 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왜 발현시키려 했고, 어떻게 실천하고자 했을까? 키움센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 자원들과 관계 속에서 지역예술교육 TA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정책분야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계망,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예술교육이 보다 더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연계하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키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린이들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듯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마다 또 다른

예술교육의 주체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 해 동안 시행된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의 운영과정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가치와 방향을 “권리”, “질문”, “지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세 가지 외에도 중요한 키워드나 방향은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역의 일상 속에서 예술교육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 지역예술교육 TA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아케이브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상상

송수연 멘토  
엔메이크랩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걱정은 다양하다.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문제가 가져올 환경문제로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며, 가속될 느린 재난의 사회에서 공적 돌봄의 힘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함께 하길 바란다. 또한 인지적 부분까지 자동화 시키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에 함께 하길 고민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에 응답하며 오랜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 위에 기술과 미디어 교육의 총위를 더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교육이 오지 않은 ‘미래’라는 시공간과 사건을 주제로 가져올 때 우리는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전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지금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예술교육은 어떻게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거점2호 지역예술교육 TA로 참여한 아케이브의 <미래극장>은 미래와 연결된 상상 그리고 그 상상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게임과 놀이라는 형식으로 가져온다. 게임이라는 특성이 교육과 연결될 때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문제의 복잡성과 모호한 상황을 놀이적으로 탐색하고 경험하며 배운다는 점이다. 또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또래와의 경험, 타인과의 공감력을 확장한다.

아케이브는 이야기, 몸짓, 소리의 형태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참여 과정을 만든다. 아이들은 미래의 기술이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도구와 재료는 미래와 연결되는 장치로 생산된다. 아이들은 자신을 투영하는 미래 아바타로 가면을

만들고, 신체 강화 아이템을 만들고, 소리 만들기를 통해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연결된다. 비물질적 디지털 공간은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확장하는 플랫폼적인 공간이 된다. 이를 위해 아케이브는 아이들과의 상호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위치시킨다. 3명의 TA는 자신을 '조조/밍밍/고양이'라고 이름 붙이고, 핑크색 슈트를 입은 매니저가 되어 아이들을 미래극장에 초대한다.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권위, 위계, 규율이 아닌 방식으로 아이들이 게임과 극장의 룰 안에 들어오길 바란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래극장을 구축하는 미래 시간에는 현실에서 감각하는 몸이나 대화, 사건은 없다. 미래극장에는 상상을 확장하는 도구, 이야기를 만드는 상상이 가이드 되지만 TA의 의도만큼 아이들은 미래의 시점에 몰입하며 신나게 놀거나 탐색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사물과 도구가 재미있고 즐겁다. 아이들은 그 나이가 인식하는 만큼의 시공간, 즉 현재의 시공간에 모여 있다. 그 위로 어른들의 미래에 대한 서사가 예술교육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지나친 기대로 맴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미래를 더 포용할 수 있는 어른들의 상상과 연습이 더 필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 돌봄을 연습하기 그리고 미래를 연습하기

최근 돌봄의 공공성,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확장되고,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돌봄의 방식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돌봄과 예술이 만날 때 시간 단위의 돌봄을 넘어 더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살피는 돌봄에 대한 고민이 지역기반의 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과 제도 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공적 돌봄의 영역 외에 예술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돌봄의 힘은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상상과 실천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 단계부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이 만날 때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많은 조율의 시간,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필요하다. 처음 만나 서로가 갖는 막연한 기대에 앞서 상호간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섬세해지는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돌봄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역사적, 횡단적 사고가 준비된 이후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미래에 대해 상상하게 하기보다, 다른 시공간과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접근은 어떻게? TA가 구성한 무대에서 아이들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은 바라는 만큼 이루기는 어려웠다.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실천하려 할수록 더 섬세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 바라는 예술교육사업도 마찬가지다. 계획과 생각만큼 준비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였고 그것이 시행착오를 만든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아케이브가 아이들을 만나는 태도와 운영 방향에 대한 거점 센터의 지원은 TA와 센터가 상호 관계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는 달랐지만, 마지막까지 서로 가능성을 더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 만들었다. 이런 경험과 태도는 미래의 돌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 지역예술교육을 위한 언어 만들기

지역예술TA의 멘토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예술교육과 돌봄 복지 상호 간의 이해가 노력에 비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측면이었다. 같은 언어로 '지역', '교육', '예술', '돌봄'이라는 언어를 사용해도 기표는 같지만, 기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맥락이 있다. 우리는 지역예술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개인적 경험이나 관점의 차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지역과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예술교육가와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을 위한 공통의 토대 만들기라는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함께 피진(pidgin)언어를 만드는 경험을 상상해 본다. 피진어는 "서로 다른 두 언어의 화자가 만나 의사소통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한 혼성어를 부르는 말"이다 두 언어가 뒤섞여 이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피진어'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집단 사이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 위한 은유이자 공통의 언어 찾기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지역예술교육을 위한 고유의 피진어를 만드는 상상과 과정 자체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경험이 쌓일수록 많은 일들을 관습적이고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은 이런 관습을 넘어서기 좋은 미디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피진어는 서로가 만드는 규칙을 통해 소통을 시작하니 창의적으로 접근하며 시작할 수 있다. 지역에서 어른들의 이런 연습과 경험이 다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감각되길 바란다.

# 지역돌봄사업에 함께한 지역예술교육TA와의 동행 동네에서 예술로 보살피고 관계맺기

서지혜 멘토  
인컬처컨설팅 대표

올 3월부터 동행한 지역예술교육 TA 사업은 '다 함께 돌봄'이라는 정책 하에 설립된 키움센터들의 거점센터와의 협력 사업이었다. 특히 첫 거점센터의 기사가 문화예술체험형 놀이로 초등 돌봄을 지향하는 서울의 아난딸로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니, 아동의 돌봄에 '공적 책무성'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에 예술이 결합하는 기회였다. 돌봄의 장에서 예술의 잠재 역량을 풀어낼 생각에, 그 과정을 함께 상상하고 구현해갈 가능성에 대한 꽤 즐거운 기대를 안고 합류했다.

## 기대감

사업에 대해 거점키움센터의 센터장님과 돌봄교사분들이 갖고 있던 기대도 못지않았다. 사업 과정 초기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워크숍에서 이들은 각자 일상에서 아동들이 예술이 주는 필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성장과 센터가 열린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데에 TA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이들의 기대 뒤에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전제하는 특별한 가치가 전제되어 있었다. 예측불가능한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예술가와 같은 자유롭고 회복력있는 '나다움'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술가들의 작업 과정에 녹아있는 관찰과 도전,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끌어내는 감각과 경험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림 1. 지역예술교육TA사업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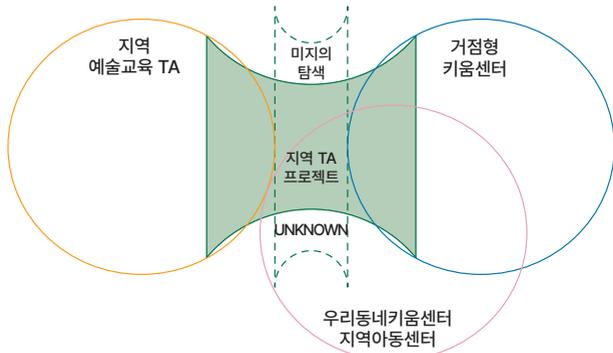
예술가와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경험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술활동이 이벤트나 특정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되는 예술과 함께 하는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적인 성장	자유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한다	
자기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예술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술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	아동 스스로 탐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아동들의 새로운 경험, 예술가들과 함께 하면서 창의성을 키워내는 기회를 주는 시간
새로운 정보를 익히고, 다양한 표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돌봄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시도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의 발견		

TA로 합류한 예술가들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새로 구성된 3인의 동료들과 매칭된 거점에서 어떤 리서치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연극하는 아이다'의 경우, 창작 프로세스를 아동들의 예술교육 활동으로 번역하는 방법론 개발의 목표와 아동과 유아들 간 보살핌을 통한 사회적 관계맺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극단 진동은 거점센터의 '장소성'에 집중하여 아동들이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자기 주도적이며 협력적인 관계 맺기에 목적을 두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목표와 기대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림 2. 예술(가)의 가치에 대한 전제

아동을 통한 미래사회의 준비 — 교육영역의 인지적 측면에 기울어진 역할에 대한 보완; 예측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처/자유로운 역량	자유로움 — 규격화된 삶외 환경에서 '나다움'을 찾기 어려움;	관찰과 도전	예술가치 = 이유? 아동들에게 이론적인 논리 공부외에 자유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위한 전제이자 존재	나를 표현하는 경험
“자유로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시키는 것-	담장의 어떤 변화나 성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경험과 기억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안에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작업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	표출

기대가 거처간 현실계의 앞



과정이 진척되면서 예술교육의 개입이 비단 거점센터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좁은 장소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하고, 아동들이 일정시간 머무르는 것이 확보되기도 학원과 학원 사이에 들르는 장소로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성격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TA들에게는 리서치 여정의 시작점에 꽤나 큰 전환, 아니 새로운 구상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했다.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두고 기획한 TA의 오판이었을까, 공간 역시도 백지에서 시작해야한다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 어쨌든 변하지 않을 현실에서 다시 출발하는 회복력을 발휘하며 기획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기대는 돌봄이 일어나는 현실계의 새로운 정보와 상황, 사업이라는 구조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일정, 관리와의 거름 사이에서 새로운 탐색을 위한 '더하기의 협력' 보다는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고 교육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문제 해결의 협력'의 성격이 점점 강해졌다. 교육 공간이 거점센터가 아닌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조정되고, 버스 배차 일정과 여타 프로그램의 일정에 교육 시간의 배치와 참여 아동 섭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었다. 한편에서는 유아와 아동 돌봄 시스템이 단절되어있는 상황에서 '예술하는 아이다'의 아동-유아 간 예술로 관계맺기를 진척시키기 위해 센터장님은 시스템을 넘어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시도에 동참하고 계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에 활용될 기자재 구매 절차상에서의 태도와 소통문제로 갈등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무엇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는 지 다시 서로 상기도 하고, 유연성에 기대기보다 매뉴얼이 훨씬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제도보완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협력 시도에서 제도와 절차를 어디까지 공식화하여 일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를 비공식적인 판단 영역으로 맡겨서 필요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지의 모호함이 모두의 곤란함으로 전이되는 과정이었다.

예술계에는 돌봄의 현실의 새록새록 드러나는 정보와 얹어 어떤 너무나 당연했고, 이 역시 기대의 한 축으로 맞이하길 준비가 되어있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 준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놓지 않는 아동 중심의 예술교육

어떤 과정이 동반되어도 아이들이 누린 예술교육은 앞선 기대에 부응한다. 예술교육 시간을 '진실의 순간'에 대해서는 TA들이 고집스럽고 충성스럽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작업을 대하듯 말이다.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업에 참여한 한 TA가 협업에 있어서 여타 다른 가능성들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초기부터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이야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TA들에게 프로그램 개발 역할에만 국한시키는 이 사업의 구조나 환경,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이라면 그 비저닝을 어떻게 함께 나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같은 협력의 배에 타고 있는 걸까?

예술교육은 이미 오랜 기간 복지, 안보, 기업혁신, 학습 등 다양한 영역과 협력해왔다. 그런데 그 협력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다. 타 영역의 기존의 구조를 안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응답하듯 제공해주는 '응답적 협력자'가 될 수도, 새로운 시도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면서도 그 추진의 배경이나 시스템, 문화와 상호작용해가며 실행하는 '반응적 협력자'로도, 그리고 요청한 영역의 시스템이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심지어 기존의 시스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전환적 협력자'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협력을 요청한 영역의 기관/단체는 어떤 협력자를 원하는 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TA 여러 방식으로 질문하며 모호할 수 있는 협력의 상과 기대를 함께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걸 다시 확인하였다.

### 티칭아티스트와 돌봄시설 양쪽 모두 매개자가 필요하다.

두 단체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TA와 거점센터의 돌봄교사 분들에게서 표출된 정서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누군가 좀 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설명해주는 번역자 역할을 했다면 해결할 사안이 문제로 전환되지 않았을 수 있고, 불필요한 자기 증명에 애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테고, 조금의 기다림과 용인이 이해로 곧 이어졌을 수 있는데 그 번역자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다. 이 공동의 새로운 탐색 여정에 여성가족재단 측에서 전문 (지역돌봄) 예술매개자의 고용을 시도해보고, TA측에서도 프로그램 층위를 넘어서 사업 단위의 기획과 매개, 행정을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이 재단 담당자와 분리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충해볼 것에 대해 제안해본다. 멘토가 아닌 함께 실행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 복잡성 가득한 협력이라 창의적일 수 있다

키움센터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역예술교육TA사업이 갈 수 있는 여러 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길보다도 중요한 길과 파트너일 수 있다. 예술교육의 매개가 가장 큰 영향으로 오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예술향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지역사회/공동체의 단위를 찾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점으로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라해서 하나로 유형화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이 파트너와 함께 예술교육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키움센터의 아이들의 일상적인 거점 공간에 '책장의 책' 같은 예술교육/예술/예술가의 존재는 어떻게 가능할지 2) 서서울예술교육센터나 관악어린이놀이터의 예술가 레지던시형이 가능한 파트너가 있을지, 3)지역아동센터나 거점센터를 위한 상담 기반 기획 파트너로서의 TA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동 돌봄센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지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TA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방식과 프로그램의 형태는 정말 다채로울 수 있고, 또 다채로워져야 할 것이다.

### 학교예술교육TA의 레거시는 포맷을 넘어선다.

서울문화재단이 일찍이 학교를 파트너 삼아 쌓아온 TA 활동의 저력은 여러 측면에서 현장에 누적되어있는 걸 목격한다. TA로 활동한 예술가들이 구축해놓은 협업구조를 토대로 한 '융합예술교육을 개발하는 능력'과 조력적 교육 방식을 활용해 아동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주체적 학습을 도모하는 역량'을 발굴하고 개발한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 그러나 TA 영역을 생성하면서 찾아왔던 예술교육의 철학과 삶과 결부되어 발휘되어야 하는 가치, 그리고 이에 대해 공감하고 영감을 받고 저마다의 예술적 실천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 역시 TA사업의 레거시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예술교육TA사업이 학교예술교육TA의 형식을 넘어서 근본적인 자산에서 출발하여 훨씬 유연하고 진취적인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希望是 本無所謂有 無所謂無的.  
희망이란 원래부터 있다거나, 또 원래부터 없다거나 말할 것이 아니다.

這正如 地上的路.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其實地上本沒有路.

사실 땅 위에 애초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다.

- 루쉰(Lu Xun) <고향> 中

올해로 2년 째,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 12명의 예술가들이, 3개 거점형 키움센터와 8개의 초등돌봄기관의 종사자들이, 100여명의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저희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들어 온 길일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새롭게 만나, 새로운 사건을,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과 돌봄이, 예술가와 (아동)시민이 만나는 파편화된 순간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 새로운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다른 모두가 적극적으로 서로를 만나고 또 반응하였습니다.

예술가가 하는 예술교육 ‘교육하는 예술가 Teaching Artist’, 삶과 분리되지 않은 예술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서울문화재단과 TA들이 만들어왔던 서울형 예술교육의 17년의 역사에서도, (학교 이외의) 보편적인 시민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관심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아이, 관심 없는 부모와 관심 있는 아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1학년에서 6학년이 함께 하는 곳, 지역과 삶이 닿아 있는 보육의 자리. 그곳에서의 예술(교육)은 새로운 고민과 연구, 노력을 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 특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무언가의 만남과, 그 속에서 맞이한 예술적 상황을, 그리고 바라건대 예술과 돌봄,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새로운 길에 대한 단초를, 지역예술교육TA 사업과 이 리뷰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업과는 다른 방법론과 미학을 고민하며 이질적인 자리로 선풍 나서는 예술(교육)가들과, 물리적 안전이 최우선인 돌봄 현장에서 감각과 사고를 위해 이질적인 존재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선풍 나서는 키움센터 종사자들의 용기와 그에 수반되는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성과 이전에 각자의 필요와 욕망, 지향이 함께 맞닿을 수 있는 걸음과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도 한 걸음 뒤에서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에서, 어느 순간 서울형 예술교육이자 서울형 돌봄의 새로운 길을 함께 닦아나가고 있구나 인지하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리뷰집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술과 돌봄으로 서로를 위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장

김진환

안녕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 돌봄사업실 아동정책사업팀 이숙현 팀장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거점형 키움센터 관계자, 지역예술가 TA, 멘토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고생해주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담당자,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년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거점형키움센터’와 ‘지역예술교육TA(Teaching Artist)’의 협력을 통한 지역 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초등돌봄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을 통해 아동의 삶과 맞닿아 있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관계, 소통의 단절을 경험한 아동들이 돌봄기관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돌봄과 문화예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함께한 창의 예술 교육은 우리 사회를 살아갈 아동들에게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의 역량을 길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예술교육 TA사업의 지속 지원을 통해 우리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정책사업팀장

이숙현

## 2022 지역예술교육TA

### 프로젝트 리뷰집

## 예술교육의 시각, 돌봄의 시간

#### 발행

이창기(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발행일

2022. 12.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획 및 편집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 승희조, 김민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정책사업팀 김명진

#### 참여전문가

서지혜 (인컬처컨설팅 대표)

송수연 (언메이크랩)

김혁진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 참여단체

극단진동 (최소진, 광경숙, 유지현)

예술하는아이다 (이영실, 조경희, 배영은)

아케이브 (오주영, 김해나, 임민재)

디라운드 (이지숙, 김민형, 유수진)

#### 협력기관

서울특별시 제1호(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중로·서대문) 거점형 키움센터

#### 사진

강민정

스튜디오 켄

#### 디자인

데이워크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전화 02-758-2110

홈페이지 [www.sfac.or.kr](http://www.sfac.or.kr)

©2022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ISBN 979-11-86489-87-1

본 책은 서울문화재단 2022년 사업운영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리뷰집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ISBN 979-11-86489-87-1

(비매품/무료)



9 791186 489871



93600

